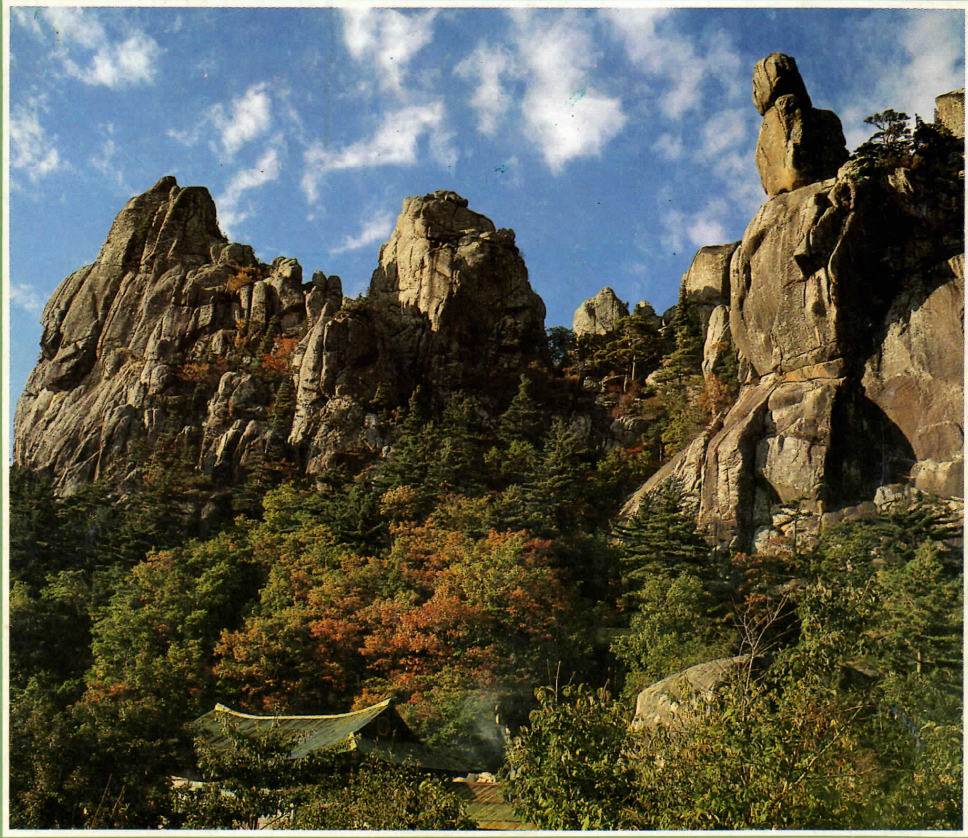
麟蹄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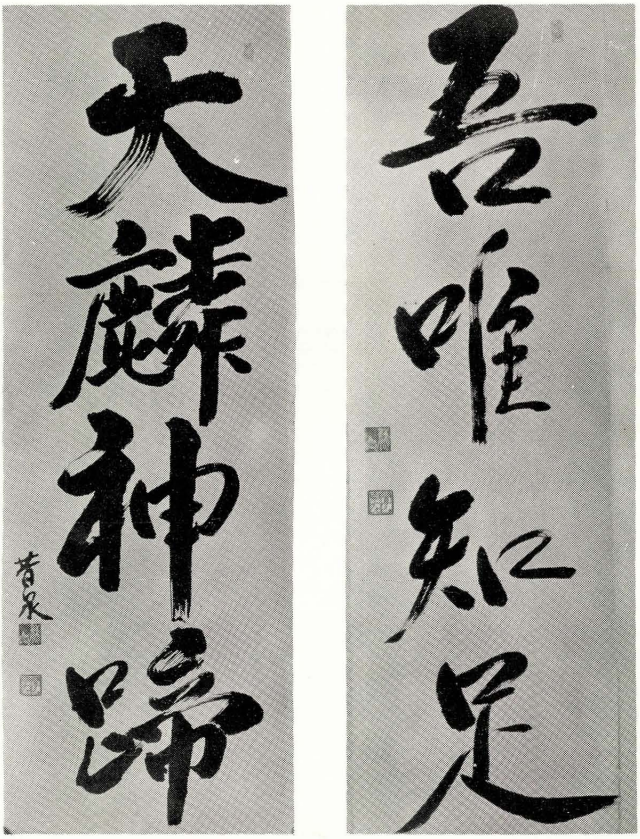
'87/第二輯



社團法人 麟蹄文化院

麟蹄文化

'87/第二輯



사단법인 인제문화원

인제 문화관(문화원) 전경

인제 문화원 연혁

1983.	6. 10	인제 문화원 설립 위원회 구성
	7. 18	인제 문화원 설립 위원회 발기인 총회
	8. 1	인제 문화원 창립총회
	8. 16	인제 문화원 이사 구성 및 이사 임시회의
	9. 19	인제 문화원 설립 법인 신청
1984.	2. 8	사단법인 인제 문화원 법인 설립
	2. 8	초대원장 김진용 취임
	4. 1	사무국장 이만철 취임
1986.	10. 24	문화관 2층으로 사무일 이전

'87의 麟蹄文化

鄕土民俗 藝術 發掘

"인제 숯둔골 숯굽기"

- 제 5 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6. 28)
-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문별 우수상 수상( )

제 2 과정 : 가막박기 열연 장면

제 4 과정 : 불지르기 열연 장면

정서 요람지 개발

"아미산 인제군림공원"

· 峨嵋山 기슭에 자리한 인제군민의 정서함양에 큰 구실을 할 공원이 금년부터 3단계로 년차적으로 조성된다. 특히 이 공원에 詩人 朴寅煥의 詩碑가 세워진다.

내 고장 인물 얼 찾기

· 한국 現代詩의 모더니스트, 故 朴寅煥 詩人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詩想을 이어 받아 현대문단을 빛 낼 인제人의 토출을 기원하며 '朴寅煥 詩碑 建立 推進委員會'가 설립되어 고장 인물 얼 찾기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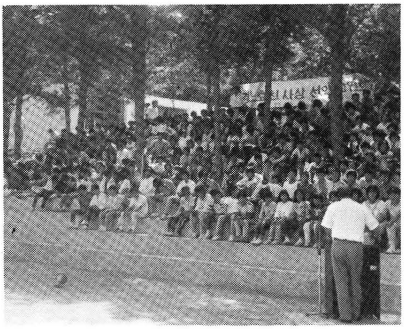
우리조상의 脈을 …

· 유일한 호국유적인 '한계고성'의 조사, 발굴, 복원의 기치아래 1차로 지표조사가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崔福奎 교수에 의하여 완료되어 이 유적의 발굴, 복원을 고대한다.

'87 문화사업 화보

· 청소년 문화 생활강좌
· 일시 : 1987. 2. 9 ~ 2. 10(2일간)
· 장소 : 인제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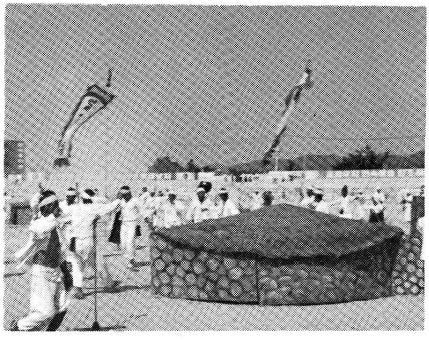
· 청소년 문화강좌
· 장소 : 상남중학교／신남고등학교
· 일시 : 1987. 6. 4



· 경노효친사상선양강연
· 장소 : 상남중학교／신남고등학교
· 일시 : 1987. 6. 4

· 경노효친사상선양글짓기대회 시상식
· 장소 : 인제문화원
· 일시 : 1987. 6. 18

'87 문화사업 화보



· 고유민속예술발굴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 제 5 회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종합최우수상
· 제28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문별우수상

· 마을 농악기 보급
· 전수마을
어론 2 리(화탄리)
서　　리(노인회원)
귀　　둔(노인회원)
한 계 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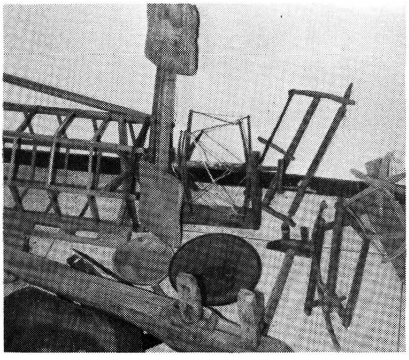
· 예절강좌
· 장소 : 인제문화관
· 일시 : 1987. 7. 22

· 문화유적순례
· 도내유적지일원
· 일시 : 1987. 7. 29 ~ 30
· 대상 : 관내 고교생 45명

'87 문화사업 화보

· 향토문화상 시상
· 장소 : 인제문화관
· 일시 : 87. 10. 23
· 대상 : 3명(박해순, 김상혁, 장복한)

· 내 고장 문화강좌
· 장소 : 인제문화관
· 일시 : 1987. 10. 23
· 강사 : 최복규(강대 박물관장)
김원준(인제읍 농촌지소장)



· 향토사료수집
· 관내일원(3회)
· 전시실 운영 계획

· 효자, 효부상 시상
· 장소 : 인제 문화관
· 일시 : 87. 10. 23
· 대상 : 6명

麟蹄文化

目　次

第二輯/1988

◇ 發刊辭 / 金 晋 鎔(文化院長) ……/ 12
◇ 祝刊辭 / 金 世 基(인제군수) ……/ 13
金 三 默(인제경찰서장) ……/ 14
梁 斗 錫(인제군 교육장) ……/ 15

特輯
開發의 可能性을 안에서 찾자 ……朴 錫 均 / 16
韓國의 海外營農政策과 民族文化圈의 擴張……김 병 철 / 18

내고장 자랑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이 만 철 / 20
寒溪山城의 復元과 保存을 시급히 바라며 ……吳 貞 振 / 23
꿈의 代辯者가 되기 위해……韓 九 鉉 / 25
朴寅煥 詩碑建立에 즈음하여 ……朴 周 華 / 28

鄕土研究
소양호와 그 유입하천의 어패류상에 관한 연구 ……최 승 일 / 35

鄕土史料
地名由來 및 傳說 ……이 태 두 / 42

歲時風俗 正月 대보름 ……朴 海 順 / 48

時評
생각하는 民族 ……吳 貞 振 / 51
明朗한 社會로 가꾸어 나가자 ……이 승 호 / 52

＊文化院의 沿革과 事業……편 집 실 / 53

題字：白蓮精舍　姜昔泉 스님

鄕土文藝

一般

時調　麟蹄 布教堂 散調 …… 姜 昔 泉 / 57
詩　봄이오면 산에 들에 …… 최 돈 선 / 58
송화강 …… 吳 貞 振 / 59
수 닭 …… 김 양 수 / 60
전 화 …… 최 양 대 / 60
장 날 …… 차 재 연 / 60
隨筆　무 제 …… 유 연 배 / 61

*이 고장 吟詠 …… 편 집 실 / 63

學生

詩　가을 하늘 …… 이 경 화 / 64
'87경로효친사상 선양 글짓기 입상작
어머니 나의 어머니 …… 안 금 숙 / 65
복주머니에 사랑이 …… 손 동 숙 / 67
어머니의 수술 …… 박 현 정 / 68
紀行文　문화유적지 순례 …… 이 명 희 / 69

*'87 인제문화원 사업일지 …… / 71
인제문화원 이사 및 사무국 명록 …… / 72
문화원 회원명부 …… / 72
88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 / 73
편집후기 …… / 76

發 刊 辭

金 晋 鎔
(인제문화원장)

鄕土文化 暢達의 先奉으로

"향토적(鄕土的) 위치(位置)에서 전통(傳統)을 발굴(發掘)하고 살려서 전승(傳承), 보존(保存), 확산(擴散)하여 오늘의 것을 찾아 내야…"

날로 발전(發展)하는 우리 고장 문화(文化)의 이모 저모를 알려주는 인제 문화지가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제 2 집을 편간(編刊)하게 되었읍니다. 정부(政府)가 교육혁신(敎育革新)과 문화창달(文化暢達)을 국정지표(國政指標)로 제시(提示)하고 있는 이때 매우 어려운 여건(與件) 속에서도 우리 인제 문화원은 군민(郡民)의 슬기롭고 지혜(智彗)로운 공동(共同) 참여(參與)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창달사업(暢達事業)에 임무(任務)와 역할(役割)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읍니다.

문화의 생명(生命)은 무한한 것입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문화의 전통성 없이는 오늘의 우리가 존재(存在)할 수 없읍니다. 이에 우리는 향토적(鄕土的) 위치(位置)에서 보고 있는 모든것의 전통을 발굴(發掘)하고 살려서 전승(傳承), 보존(保存), 확산(擴散)함으로서 새로운 오늘의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하고 긍지감을 갖게해서 후손(後孫)에게 영구(永久)히 계승(繼承)되는 밑알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받아 갈 향토문화의 귀(貴)한 기록(記錄)에 지주(支柱)가 되고 매체(媒體)역할이 될 인제문화 제 2 집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고향(故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발전에 기여(奇與)해 온 인제 문화원이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본지의 지령(紙齡)이 해를 거듭할 수록 문화홍보에 적극임할 것을 밝혀 두면서, 끝으로 본지를 내는데 협조(協調)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感謝)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지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指導)와 노력(努力)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祝 刊 辭

鄕土文化誌가 傳統文化를 계승發展시키는 支柱가 되기를…

金 世 基
(인 제 군 수)

"麟蹄文化" 第2輯 發刊을 먼저 祝賀드립니다.

同族相殘의 悲劇이었던 戰爭으로 焦土化 되었던 이 땅에도 오손도손 사람이 모여 살고, 나름대로 地方文化를 傳承 發展시켜 나가고자 盡力하는 郡民이 자못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기 까지 합니다.

衣, 食, 住 걱정에 趣味生活마져 잊고 지내던 지난날들. 失意와 挫折속에서 하늘 바라보기가 일이었던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언제 우리의 生活이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들 머리 속에서 잊혀졌던 地方文化의 保存傳承과 暢達에 까지 至大한 關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多幸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郡民의 關心은 곧 鄕土愛로 이어져 고장 發展과 郡民和合의 계기가 되었고, 郡民의 自負心을 심어주는 促進劑가 되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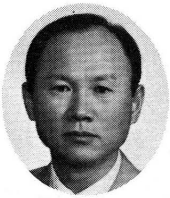
좋은 例로 文化院에서 發掘 再現한 "뗏목놀이", "심뫼마니", "숫둔골 숯굽기"等 民俗놀이가 道單位나 中央單位 競演大會에서 우수하게 入賞한 것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이제 우리 郡民은 이러한 事業들이 文化院에서만 하는 일이라 생각지 말고 모두의 使命으로 알고 계속해서 補完 發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郡內에 自生으로 組織된 文化團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此際에 이 고장을 眞心으로 사랑하는 知性人들로 하여 文化團體가 結成되고 文化院과 더불어 地域文化 發展에 功獻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麟蹄文化" 誌가 나이를 더 하면서 보다 成熟한 모습으로 郡民의 文化意識涵養에 튼튼한 받침돌이 되어 줄 것을 期待하면서 册을 펴내시는데 盡力하신 諸位께 感謝드리고 文化院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祝 刊 辭



金 三 默
(인제경찰서장)

내 고장 鄕土文化의 繼承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어야…

"鄕土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하나의 團結된 民族精神과 多樣한 文化를 創造할 수 있는 民族의 自負心이 필요"

5萬 郡民의 聲援과 이 고장 鄕土 文化人들의 努力으로 文化誌 創刊 1週年을 맞이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하며 내 고장 향토문화의 繼承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創刊 이후 문화지는 군민과 같이 호흡하고 부딪히며 同病相憐의 情을 나눌 수 있는 문화지였기에 우리 군민의 자랑이요, 未來文化의 遺産이며 祖上의 얼이 담긴 향토문화의 脈을 이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유산도 가꾸고 保存하지 않으면 흐르는 세월속에 묻혀 傳統과 命脈을 이어 갈 수 없으며 편리하고 새로운 것만을 追究하면 민족의 주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것 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국민이기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우수한 民族精神을 통하여 국민 總和와 和合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오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한 핏줄 한 형제이면서도 두 체제를 위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차츰 固定化 되어 우리의 民族文化가 異質化되어 가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전통의 脈을 이어 가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는 하나의 단결된 민족정신과 多樣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民族의 自負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의 歷史를 창조할 인제 문화지의 창간 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인제군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本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본지가 계속 健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祝 刊 辭

「麟蹄文化」誌가 내 고장 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精神的인 支柱로…

梁 斗 錫
(인제군교육장)

**"文化는 무엇보다 所重한 것입니다.
先人들의 化身인 文化遺産들이 오늘날을 살아 가는 우리들의 가르침이 될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麟蹄文化」 제 2 집을 刊行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지난해 鄕土文化 發展에 礎石이 될 "麟蹄文化" 創刊으로 鄕土文化 發展의 기틀을 마련했던 「麟蹄文化」誌가 이제는 내 고장 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精神的인 支柱로 서게 되었읍니다.

文化는 무엇보다도 所重한 것입니다. 先人들의 化身인 文化 遺産들이 오늘날을 살아 가는 우리들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읍니다. 그런데 麟蹄文化院에서 늦게나마 이어져 내려온 전통 문화를 계슬발전 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곳 인제는 희망이 샘 솟기 시작했으며 미래가 숨쉬고 있읍니다. 文化 遺産을 더듬어 보고 우리 고장의 文化를 널리 알리고자 갖는 어려움 속에서도 2 집을 내게된 「麟蹄文化」誌가 아무쪼록 지역문화의 전승·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特 輯

"開發의 可能性을 안에서 찾자"

朴 錫 均
(시사평론가, 향토인)

I

「麟蹄」,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기린의 발굽이다. 뜻을 새긴다면 기린이 남겨 놓은 발자욱이라는 뜻이 될 것이니 얼마나 좁고 척박하다는 뜻인가? 남면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 군축령을 넘어서 인제읍으로 들어갈 때 내려다 보이는 읍내를 보면서 「기린의 발자욱」이라는 이미지를 찾아 보려고 애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그런 좁고 척박하다는 이미지를 찾는 데 실패한 나는 인제란 낱말이 가진 의미가 「발자욱」이란 뜻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요즘 세속 사람들이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 운운하는 것은 땅 이름의 뜻조차 모르는 일자무식의 쌍것들이 지껄이는 소리라,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소리다.

'麟'자는 기린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린면(麒麟面)이 있다. 그런데 이 기린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용, 거북, 봉황과 함께 4령(靈)이라고 하는 귀하고 성스럽고, 상서(祥瑞)로운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동물원에서 보는 목이 긴 아프리카산 기린은 원래 기린과에 속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사슴의 몸매,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말굽을 가지며 머리에는 살(肉)로 된 뿔이 하나 나 있고, 털은 5색이고 배의 털은 누른 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이 기린은 산(生)풀을 밟지 않는 어진(仁)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기린이 발자욱을 남긴 곳이 인제라면, 그 땅은 그만큼 신비롭고 깨끗하며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선경(仙境)이요, 비경(秘境)이라는 뜻이다. 십이선녀탕이요, 한계령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경과 비경을 일컫고 또 하나의 딴 이름일 것이다.

Ⅱ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아스팔트 위를 승용차로 미끄러지듯 달려서 편안히 인제에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첩첩산중, 발 닿는 곳마다 선경 아닌 곳이 없이 비경과 비경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업화의 시대에 와서 인제는 공업화의 길이 막혀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소양호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 상류에는 공장도 안되고 목장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시책의 골간이다. 하지만 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장이 서면 공해가 생기고, 노동자들이 삼지사방에서 모여와 인심은 사나워지고 인제 군민만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에도 얼룩이 지고 때가 끼게 마련이다.

오히려 그런 공업화 보다는 이 고장이 관광지역으로 발전하여 피곤한 도시인들이 찾아들어서 심신을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인제라는 땅 이름에 걸맞는 역할일게다. 원래 「인지지화(麟趾之化)」라고 하면 황후의 덕을 기리고 칭찬할 때 쓰는 말이니, 인제가 현대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어머니 품속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다.

다만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여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 곳에서 번 돈을 도로 서울로 가져 간다면 인제 사람들은 공연히 자연보호한다고 빈병과 휴지를 줍기나 하는 청소부의 역할밖에 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관광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인제 군민이 십시일반으로 다만 몇만원 씩이라도 투자를 하고 군·도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큰 호텔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집이라도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며서 손님이 친척집에 찾아와서 쉬는 것처럼 푸근한 인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호텔보다도 몇배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제 3 의 물결을 쓴 「칼빈 토플러」의 말처럼 다가오는 21세기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Small is beautiful)」 때인 것이다. 그리고 옛날의 통나무집, 옥수수가리, 맷돌, 멍석등과 같은 것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설악산 부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앞으로는 서울 명동보다도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설악산보다도 한적하고 호젓한 곳이 더 인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무엇이며, 서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군민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개발의 가능성을 항상 안에서 찾는 것이다.

기린은 산(生)풀을 밟지 않는 어진(仁)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기린이 발자욱을 남긴 곳이 인제라면 그 땅은 그만큼

신비롭고 깨끗하며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韓國의 海外 營農政策과 民族文化圈의 擴張

김 병 철
(인제종합고등학교장)

Ⅰ. 序 論

緯度上 韓國의 位置는 温帶地方의 快適한 氣候에 四季節의 變化로 사람 살기에는 좋은 還境이나 年間 6個月 동안이나 풀이 자라지 않고, 벼농사를 年 1毛作 밖에 하지 못하므로 農業國으로서의 適地는 아니다.

地政學的인 與件 속에서도 슬기로운 韓國人의 智慧로 綠色革命을 이룩하여 先發的 開發途上國이 되어 이른바 國際的 農業技術移轉을 實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實例로 農業振興廳 熱帶農業研究所에서는 後發的 開發途上國에서 農業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을 韓國에 불러다 農業技術 移轉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또한 앞르로의 農業政策은 한국의 農業技術者와 農民들이 드넓은 大地의 地球村에 나아가 그들 地域社會를 開拓하여 生産한 農畜産物을 資源이 不足한 韓國으로 導入하여야 한다.

우리의 國土는 挾小한데다 資源은 不足하고 갖은 것이라고는 世界 第2의 人口密度로 大都市는 사람의 물결로 가득차 있는 時点에서 農業技術者의 海外派遣은 人口의 分散面에서도 必要하다.

사촌이 땅을 사 배 아파 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광활한 地域은 부지런하고 마음 밭이 착한 韓國人을 부르고 있다. 特히 아마존江邊의 未 開發된 광활한 土地와 아르헨티나, 남미, 아프리카등의 賦存資源을 開發하기 爲해서는 移民의 種類中 農業移民이 가장 손쉽게 받아지고 있는 現實에 韓國農業人 모두의 智慧를 모아 世界속에 도전할 때가 왔다. 얼마 前만 해도 海外移住를 計劃하거나 떠나는 사람은 祖國을 버리고 더 심할때는 배반한 者라는 오명을 감수 해야만 했다. 그러나 時代的 狀況은 많이 달라졌다. 人口問題의 解決은 民族文化圈의 擴張과 國民生活 領域의 擴大, 나아가 國民經濟의 擴張이란 面에서 海外進出은 매우 重要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農業移民을 거점으로 하여 求償貿易을 擴大해 나 갈 수 있다는 점과 드넓은 大地를 개척하기 爲하여는 國內外의 建設現場에서 使用하던 장비를 活用할 수 있고 나아가 韓國製品의 農業機械를 受民國에서 우리 農民들이 使用할 수 있다는 점에서 海外營農定着은 積極 권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Ⅱ. 農業移民의 推進史

天災地變으로 因해 백성들이 三國時代에 南部中國이나 日本等地로 들어갔다는 記錄은 우리나라 移民史의 효시이다.

集團移民은 朝鮮王朝 末葉의 北間島에서 기름진 땅을 開拓하고자, 生命을 건 끝에 北間島를 開拓하였고 이는 훗날 獨立運動의 基地가 되었으며 시베리아의 移民까지 實現하게 되었다.

1903年 1月 호노루루항에 도착한 101名의 韓國人이 우리나라 歷史上 最初로 公開募集에 依한 첫번째 移民이 었고 이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農場에서 일할 勞動者의 進出에서 부터 始作된 것이다. 그들이 오늘날 미국 移民의 씨앗이 되었다. 政府수립 후 1962年 정인규씨(예비역대령)등 15가구가 進出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集團移民의 시작이었으며 이때 부터 관심이 높아져서 現在 地球村各國各處에 相當數의 移民으로 韓國의 文化圈을 擴張해 가고 있다.

海外人力進出을 위해 經濟企劃院, 海外協力委員會(1985年, 對外經濟調整室로 改稱), 韓國海外開發公社, 農業振興公司 等 機關에서 끊임없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Ⅲ. 海外進出을 爲한 弘報活動의 展開

農業系 學生들이나 農漁民 後繼者들과 對話를

나누어 보면 未知의 世界에 도전하려는 생각 보다는 한국에 살고저 하는 생각들이 支配的이다.

先進國에서는 中,高等學校 敎科目에 海外를 알게하는 교과과정이 있으며 世界속에 도전할 수 있는 勇氣와 實力을 불어 넣기 위하여 海外移住 써클에 加入된 學生들이 活動할 수 있겠끔 支援하고 있다.

어린 時節부터 海外를 알게하고, 우리의 中·高敎科科目에도 海外에 도전할 수 있는 內容을 담아 世界를 알게 해야 한다. 中·高生은 勿論 農漁民後繼者들에게 特히 4H 회원들에게 對外指向的인 海外硏究活動을 政策的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農業技術指導와 교포 相談을 爲한 現地 大使館에 農務官 및 카운셀러를 두며 發展的으로 國內의 農村指導所와 같은 指導機關과 試驗硏究官을 두어 失敗하지 않게 技術支援을 現地에서 해 주어야 한다.

Ⅳ. 結　論

요즘 우리나라 大學放送祝祭의 풍자극을 볼 때 어린 時節은 철모르게 좋았고, 고교에서는 再修生을 면하려고 고민하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失業者 면하는 번민속에 쌓인다는 內容, 이것은 풍자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現實이다.

이와 같은 아픔은 國土는 挾小한데 갖인 資源이라곤 世界 第2의 人口밀도, 거기에다 高學力으로 因한 意識構造의 結果이다.

이러한 現實은 우리들로 하여금 海外人力進出의 必要性을 强하게 갖게 한다. 여기에다 世界의 形便은 어떠한가? 全人類의 10%가 食糧 不足으로 영양 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중 10% 정도는 절대기근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숨져 가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國土가 挾小하고 人口과잉 여건하에 南北대치의 긴장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모를 食糧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賦存資源을 活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00년대에 가서는 '80년대 초에 비해 식량수요가 70%나 증가될 것이며, 자원강대국의 食糧武器化 政策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國內 부존자원 개발은 國土가 협소하여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서해안 바다를 막는데 必要한 수 많은 재원을 海外農業分野 開發에 돌리면 좋겠다. 우리의 領海는 우리가 못해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여유 있을 때 할 것이니, 드 넓은 大地의 農業適地國家들이 우리에게 開發에 동참하여 함께 살자고 할때 政府와 國民은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國家의 먼 장래를 바라보며 海外進出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全世界 160개국中 열대, 아열대권의 자원 확보국 111개국 가운데 한국과 국교 관계를 맺은 우방이 87개국의 대부분이 무한한 자원 개발의 可能性과 永久的 투자 가치와 효율성이 있는 開發途上國家들이다. 우리의 저력을 地球村에 심어 世界속의 한국과 협동 속에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海外進出로 자원개발 도입에 힘을 써야 한다.

이러한 꿈은 신천지에 씨를 뿌리는 식량 개척의 역군이 되고 海外 농업개발과 産業基地 조성으로 21세기를 한민족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녹색혁명의 국제적 성취를 위한 영구 훈련과 기술 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민족 부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십자군이 되며, 영농 합작에 의한 공존공영을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세계식량 자원의 보고이며 한민족의 신천지 개발과 새 역사 창조의 黃金 地帶다. 한국인은 마음밭이 착하고 부지런하며 어느 환경에도 적응하는 體力에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지가 있으므로 축척된 농업기술과 우수한 도뇌로 현지 지역 농민들에게 농촌지도 사업을 벌려 국경을 초월한 人間的 상호 작용이 可能하다.

그 中에서도 특히 개발지원 전달 매체를 주축으로한 人間의 태도, 가치의 변화→지식, 기술의 변화→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生活의 質을 구현하는 궁극적 목표를 기할 수 있어서 現地地域社會 開發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도 하게 된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선발적 개발 도상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산간 민속의 뿌리를 찾아 본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이 만 철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1. 맥을 이어온 민족문화

5천년의 전통문화 터전위에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유구한 역사의 맥을 이어온 우수한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의 인종에 따라 언어와 풍습을 각기 달리하고 역사를 가진 나라들마다 독특한 문화의 꽃을 피웠겠지만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 영향으로 숱한 외세의 침략으로 민족문화의 고유성이 끊어질듯 끊어질듯 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오늘날과 같이 훌륭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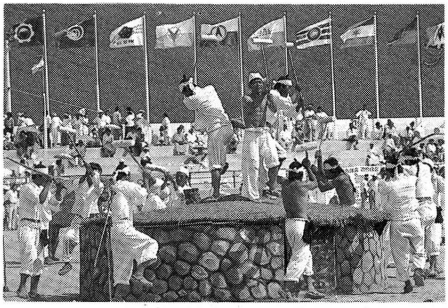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 계승의 맥을 이어온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깃들인 향토문화와, 전통의 뿌리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란 인류역사의 위대한 발자취이며, 시대의 형상이요, 시대인의 사명이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 문화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하여 왔다.

문화의 성장과정이 흘러 온 시대조류에 따라,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이질적 외래문화가 끼어 들어 전통문화의 맥을 흐려 놓기도 하였고, 또한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강력한 정치, 경제가 중앙무대에 집중되었던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아 문화도 중앙 및 대도시에만 편중되었고, 이 때문에 지방문화는 그 균형을 잃은 채 퇴색하여 왔다.

즉 6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에 몇개의 문화원이 자생하여 그 기능이 정부의 홍보 계몽에만 치중하였던 것이며, 그후 70년대 초에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지방문화의 전통과 뿌리를 찾아 전승하는 본래의 사업을 하게 되었고, 80년대에는 정부의 문화 창달을 위한 보조 및 지원아래 활성화되었고, 향토문화 창달사업에 문을 활짝 열어 균형있는 문화권을 진 일보 수용하게 되었다. 문화는 결코 남의 것이 될 수 없기에 오늘날 문화를 애호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부합되어 그 지방의 뿌리 깊은 문화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 문화권 전승자들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향토문화는 향토민의 맥이요, 향토 현실을 조명하는 정신적 지주로 볼 때, 향토 문화창달은 향토민의 긍지와 보람을 북돋아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문화사업의 창달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라 사랑에 바탕이 되고, 국민 정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색채가 뚜렷한 우리고장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 해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소재를 발굴하여 재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소재는 85년도 "인제 뗏목" 놀이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종합 최우수상을 받는 우



수성을 인정 받았고, 86년도에는 인제 '심메마니'를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를 발굴하여 재현함으로서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다시 영예의 종합 최우수상을 받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연하여 또 다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부문별 우수상으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는 쾌거였다.

우리고장의 경우 이와 같은 향토 고유 민속생활상은 이 고장의 특성인 산(山)을 매개로 하여 영위되어 왔고, 산간에서 모든 향토민속적 생활상이 전승발전 하게 되었다.

산간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지대한 공을 인정받은 우리 군민은 2000년대의 이 고장 선진문화 창달을 위하여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재정이 어렵고 고충이 뒤 따르더라도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문화를 가꾸고 다듬어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찬란한 향토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데 동참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소제 발굴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설명, 보고 하고자 한다.

2. 인제 숯둔골 숯굽기 놀이

1. 배 경

인제군의 면적은 1951.2㎢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의 90%가 산으로 구성되었다. 태백산맥을 이어 북쪽으로 금강산맥, 동남쪽으로 오대산맥이 인제 지역으로 뻗으면서 수 많은 산으로 구성되었고 해발 800m 이상의 봉우리가 208개가 있는 심산유곡의 절경을 이룬 지역 특성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전국에서 제일의 임산 자원을 가진 원시림 상태의 태고적 산림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 문화 발전의 공해로 때 묻지 않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좋은 이 고장을 관광 및 휴양지로 봄철서부터 늦은 가을까지 관광객이 줄을 이어 늘 붐비고 있는 것이 산을 접하고 있는 고장으로서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렇게 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고장에 우리 조상들은 산을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해 왔음은 물론이다.

예를들어 산채나물, 열매, 버섯류, 산약, 특히 산삼, 밀림을 이룬 임산물, 꽃을 이용하는 양봉이 산림에 서식하는 조류, 여러종류의 산 짐승등을 생활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나무를 베여 목재, 화목, 숯등 여러가지 산림자원에 의지하며 생활하여 왔다. 그중 나무를 이용하여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온 흔적인 숯가마터가 산중 여러곳에 산재하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인제군 남면 어론2리 화탄(禾炭)부락은 옛부터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여 온 숯의 마을이다. 이 곳 고유이름으로 "숯둔골"이라 하는데 그 발상을 살펴 볼때 그 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300여년전에 이 곳에 처음으로 함씨, 지씨, 박씨 3성바지가 이 마을에 들어와 숯만을 구워 팔아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 왔다고 하여 "숯둔골"이라는 자연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탄(禾炭)이라고 부르는데 그후 180여년 후에 장한수라는 사람이 이 곳에 정착하여 숯을 구으며 벼통사를 지었는데 벼농사가 잘 되얼 벼화자(禾) 숯탄자(炭)를 써서 화탄이라고 불려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현재에는 산업문화의 발달로 숯을 사용하는 수요처가 줄어 들어 옛날과 같이 이 곳이 숯을 굽는 것을 생활 방편으로 이용하든 것은 이미 사라져 없어졌기에 이 고장의 노인들에게 고증을 얻어 숯굽기 민속 생활상을 발굴 보존하고자 금년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이 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출연하게 되었다.

2. 발 굴

87년 3월부터 4월에 이르러 군청공보실과 문화원이 주측이 되어 화탄 마을의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고증을 얻어 강원대학교 박민일교수(강원문화연구소장)의 유적조사를 통해 그 원형을 찾아 재현하였다.

고증을 해 주신 분으로,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장영창(68세), 인제군 남면 신남리 조만영(75세), 인제군 남면 어론2리 안득수(68세), 인제군 남면 신풍리 박성택(72세) 그외 화탄마을 노인회장 및 회원님들의 고증에 큰 도움을 얻었다.

3. 연출과정

제 1 과정 : 입산

홀치기, 짚신, 머리수건을 맨 일행이 도끼, 낫 등을 주루먹에 넣어 지고 입산한다.

제 2 과정 : 가막박기(숯가마 만들기)

등치기 소리, 통치기와 전담을 쌓아 올려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에 다듬은 나무를 세워 놓고 등치기 소리를 천천히 — 빨리 … 애벌 두벌치기를 한다.

제 3 과정 : 가마치성

치성 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든 것을 "등치기"가 끝나면 숯가마가 망가지지 않고 숯이 잘 구워져 달라고 산신제 치성을 드린다.

제 4 과정 : 불지르기(점화)

숯가마에 불을 질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참여자들 모두가 환성을 울리며 농악을 강하게 치며 흥겨웁게 숯가마를 위주로 춤을 추며 돌고 일부는 국수대싸리나무로 숯섬을 만든다.

제 5 과정 : 한마당놀이

참여자 모두 농악에 맞추어 숯을 지게에 지고, 걸방에 지고, 소에 싣고, 머리에 이고, 각종 도구를 들고 신나게 춤을 추고는 퇴장한다.

4. 출 연 자

※ 출연인원 : 66명(남60, 여6), 조사 · 재구 : 朴敏一(강원대학 교수), 연출지도 : 張復漢(원통고등학교 교사), 선소리 지도 : 朴海順(인제축산협동조합장)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성 명	연령	배 역
최 양 준	75	가마주인	박 공 노	46	등치기꾼	전 동 준	49	소 주 인
구 자 윤	52	집 사	임 명 권	30	〃	이 응 춘	49	지 게 꾼
박 성 택	72	비 수 안	박 동 욱	29	〃	문 제 윤	60	〃
박 해 순	63	선 소 리	이 종 수	35	〃	신 봉 길	50	〃
김 경 섭	49	등치기꾼	심 도 흠	32	〃	정 성 국	55	〃
윤 희 선	50	〃	송 경 상	31	〃	전 동 수	53	〃
김 주 환	30	〃	김 옥 기	28	〃	김 상 혁	64	농 악
김 두 수	45	〃	박 철 희	29	〃	전 재 봉	80	〃
윤 기 선	42	〃	최 창 득	34	〃	김 영 규	76	〃
윤 기 춘	49	〃	송 경 춘	34	〃	이 종 명	67	〃
박 민 부	44	〃	심 군 흠	28	〃	이 주 은	74	〃
함 인 엽	33	〃	최 인 득	28	〃	이 상 주	48	〃
구 자 훈	43	〃	박 공 호	49	가래질꾼	박 재 승	64	〃
윤 태 권	36	〃	장 세 한	55	〃	임 경 섭	71	〃
윤 태 성	23	〃	임 덕 만	53	〃	김 순 기	66	〃
문 광 철	46	〃	박 광 열	53	〃	신 혜 식	29	아 낙 네
황 경 모	44	〃	안 듁 수	68	〃	윤 순 옥	33	〃
임 명 수	27	〃	김 명 환	48	〃	김 순 덕	25	〃
윤 재 번	40	〃	윤 영 도	50	기 수	최 영 진	30	〃
염 선 경	45	〃	송 경 운	41	〃	문 복 순	48	〃
장 순 길	50	〃	김 종 운	55	〃	김 옥 란	39	〃
김 진 홍	31	〃	장 영 근	46	소			
김 형 만	29	〃	장 일 록	41	〃			

호 국 유 적 지

寒溪山城의 復元과 保存을 시급히 바라며…

吳 貞 振
(인제향토연구소장)

國土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때문에 우리 先祖들은 이를 지키기 爲해 피 땀 흘려 성을 쌓고, 有事時 이를 據點으로 목숨 바쳐 싸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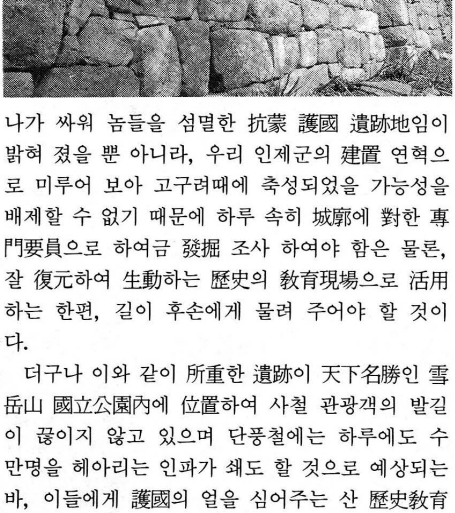
이 護國遺跡인 古城이 그 價値나 稀貴面에서 至大한 보물이건만 形式的인 記念物 指定에 머물러 덧없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東國與地勝覽을 보면 어느 고을이나 邑城 또는 山城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한결같이 頹落해 가고 있다는 當時의 狀況도 아울러 적고 있는 것을 보면, 李朝 오백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방치 상태에 있음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고장엘 가나 잘 發掘 復元된 古城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은 어찌된 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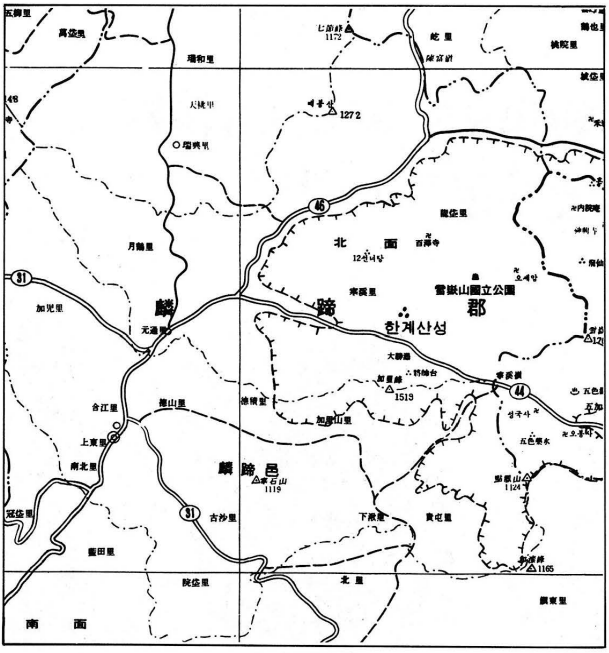
우리 麟蹄郡 域內 雪岳山 國立公園內 玉女湯溪谷 1·2㎞에 位置한 寒溪古城도, 高麗때 까지는 잘 補修 이용돼 왔으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백여 년간 放置되어 왔기 때문에, 世宗때에 약 5키로미터이던 방대한 城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겨우 原形을 찾아 볼 수 있는 部分이 50미터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태이며, 그나마 위에서 土石이 밀려 내려와 쌓여서 마치 축대 모양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이 千年 古城이 고려 高宗46년(1259년) 逆賊 趙暉를 앞잡이로 蒙古兵이 처들어 왔을때 이 城을 지키던 防護別監 安洪敏이 衣別抄를 이끌고



나가 싸워 놈들을 섬멸한 抗蒙 護國 遺跡地임이 밝혀 졌을 뿐 아니라, 우리 인제군의 建置 연혁으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때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속히 城廓에 對한 專門要員으로 하여금 發掘 조사 하여야 함은 물론, 잘 復元하여 生動하는 歷史의 敎育現場으로 活用하는 한편, 길이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이 所重한 遺跡이 天下名勝인 雪岳山 國立公園內에 位置하여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단풍철에는 하루에도 수만명을 헤아리는 인파가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에게 護國의 얼을 심어주는 산 歷史敎育場으로 活用하는 한편, 설악을 찾는 外國 관광객들에게는 古蹟 觀光의 조건을 구비하는 뜻에서도 하루 속히 文化財委員會의 조사 심의를 거쳐서 歷跡으로 發掘 復元되도록 뜻 있는 郡民들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位置圖 ◎

寒溪山城 지표조사 보고서 요지

○ 조사기간 : 1986. 6. 10~10. 22

○ 조사단

단　　장 : 최복규(강원대 박물관장)

조사위원 : 심용섭(강원문화재 전문위원)

조 사 원 : 박호선, 정연우, 김용백

조사보조원 : 장영숙외 6명

○ 조사과정 : 한계산성에 대한 몇차례의 사전 조사 결과, 산성의 대부분 성벽이 허물어졌거나 많은 지역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작업을 하기 보다 기초지표조사, 발굴조사, 복원의 3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 하고저 함.

○ 조사 내용

1. 축조년대 미상이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로 추정
2. 규모 : 길이 1,968m(대동지지, 약 20km), 높이 5.6m
3. 축조방법 : 산골짜기와 능선의 지형을 이용 주위의 돌로 쌓음

○ 결　　론

1. 발굴조사가 시급
2. 보수작업과 복원이 시급
3. 성벽 외에 건물터, 우물터로 복원
4. 호국유적으로 중요기념물이다

創 團 辭

「꿈의 代辯者」가 되기 위해

韓 九 鉉 (劇團「온솔뫼」총무)

사람들이 즐겨 노래하는 素材 중에 갈대 또는 왕골이 있다. 갈대라 하든 왕골이든 밖은 말랐고 속은 비었다. 그것은 곧 人生이다. 그래서 어떤 詩人은 「人生은 다만 허무(虛無)한 꿈(Life is but an empty dream)」이라 노래했고, 「반야심경(般若心經)」중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 하여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비어 있다고도 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빈 것이고, 빈 것이 다만 우리 눈에 어른거린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궁근 속에 채울 수 있는 「생각의 힘」, 「사고(思考)의 能力」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文化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살고 간 先人들로부터 물려받은 價値觀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開革이니, 革命이니 하는 과격한 말을 즐겨 쓰면서 크게 달라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옛 사람의 말은 아직도 값있는 교훈(敎訓)이다. 하지만, 사람이 그토록 변하기 어려운 動物이라 하더라도 퇴영적(退嬰的)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사람답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변하기 어려운 속에서, 또 다른 새싹을 움트게 하기 위해 劇團「온솔뫼」를 創團하기에 이르렀다. 이 劇團의 創團 目的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人間의 本能的 思考에 α라는 인자(因子)를 더한 공리(公理)를 設定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α는 精神이며 無限이고 永遠이며 絶代이다. 쉴러(Schiller)는 「나무는 자라도 하늘에 까지는 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人間의 精神的 自我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世上에 태어났으며, 그 사실이 인간이 지닌 괴로움이며 또한 동시에 기쁨이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希望의 사다리를 기어 오르기도 하고 絶望의 바닥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그 꿈이 몇 그루 영근 옥수수일 수도 있고, 軍人 나간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일일 수도 있다.

우리 「온솔뫼」는 이러한 麟蹄 地域「꿈의 代辯者」가 될 것이며, 無限한 思考力을 바탕으로 인제 지역 文化 發展에 이바지 할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 努力할 것이다.

둘째는, 발기인(發起人) 대부분이 인제 토박이 출신이 아닌 他地 出身 職場人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愛鄕心을 가지고, 인제 연극 문화 발전에 기연하겠다는 目的이다. 러시아 革命 때에 한 발은 볼셰비키나 맨셰비키에 딛고, 다른 한 발은 로마노 王朝에 걸치고 있는 유(流)의 것이 아니며, 겉으로는 인제를 愛鄕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自己의 생색이 안 나든가, 自己의 이익과 무관(無關)한 일에는 발을 빼려는 이중적(二重的)이며 단절(斷絶)된 劇團이 아닌, 인제와 더불어 길이 남을 극단으로 계발(啓發)하고 개발(開發)함에 그 텃 밭

우리는 변하기 어려운 속에서 또 다른 새싹을 움트게 하기 위해 劇團「온솔뫼」를 創團하기에 이르렀다.

이 될 것을 강조(强調)한다.

그리고, 우리 극단 회원들은 빈 갈대 속을 채움과 같이 인제 극단 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精神的 價値를 추구(追究)하는 그런 회원이 되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그러한 삶에는 멋이 있고, 보람이 있고, 진정한 意味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떡 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갈대가 되며 살것을 명심(銘心)하자.

끝으로, 우리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난 고향(故鄕) 말고도 가슴 속에 간직한 마음의 故鄕 하나쯤은 두게 마련이다. 두고 볼수록 새로움이 넘쳐나고 그저 편해서 좋은, 인제는 그러한 故鄕이라고 하겠다.

TV의 내장(內藏)처럼 얼키고 설키어 숨 돌릴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는 現代人의 心身을 붙들어 맬 만한 童話 속의 풍경(風景) 같은 곳이 어디 흔하겠는가. 눈 주는 데마다, 발길 닿는 데마다 얽힌 傳說이 주저리 주저리 서려 있는 우리 인제는 너나 없이 잘 알려진 內雪嶽을 끼고 있다. 이곳 內雪嶽의 옛말이 바로 「온솔뫼」이다. 그러하니 모두가 한 식구같이 소중스럽고 情이 가는 곳이니만치 깊은 유래(由來)와 아기자기한 노래를 간직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기에 「온솔뫼」의 나아가는 길이 험(險)하고 至難하기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밀도(密度)있게 매진(邁進)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目的하는 바 頂上은 결국 征服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劇團은 첫 발을 내 디딛는 아이와 같다. 루소(Rousseau)가 敎育의 첫 과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똑똑하게 가르치는 일이라 하였듯이, 「온솔뫼」가 巨木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地域 人士들의 많은 참여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향(藝鄕)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도록 「온솔뫼」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創團辭로 대합니다.

■ 本 劇團「온솔뫼」의 目的과 취지에 마음 가시는 분은 도약적 발전을 기할 힘이 되어 주십시요. ■

사무실 : 인제문화원 內

"인제 연극불모지에 연극의 찬연한 성(城)을 쌓아 그 터전을 마련, 지역 연극 문화창달에 기여하였으면…
극단 『온솔뫼』創團

명년 2월 14일
처녀공연을 앞둔
"토끼와 포수" 연습장면

○ **創　團**: 1987년 12월 22일

○ **任　員**: 단장　장 복 한(원통고 교사)
총무　한 구 현(인제고 교사)
재무　홍 혜 경(인제전신전화국)
간사　송 변 선(인제고 교사)

○ **團　員**: 장복한 정시헌 한구현 송병선 차재연 이덕배 정재학 김미영
홍혜경 한명희 이영숙 안선희 유연배 황해화 이상각

朴寅煥 詩碑 建立에 즈음하여…

朴 周 華
(朴寅煥 詩碑 建立
推進委員會 總務)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즐겨 읊조리고 사랑받는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등의 대표작을 남긴 韓國의 Mordenist 박인환의 詩碑를 그가 태어난 麟蹄에 建立하여 그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의 業績을 이어받아 未來의 麟蹄, 韓國 現代詩의 產室인 麟蹄가 되고자 朴寅煥 詩碑 建立 推進委員會가 발족"

한국 현대 문단에서 군(郡)단위 지역으로 우리 인제만큼 질적, 양적의 문인을 배출 및 연계된 고장은 없을 것이다. 즉 민족 시인 만해 한용운선생은 이곳 백담사 오세암에서 그 유명한 "님의침묵"을 탈고 하였고, "현대시의 MORDENIST"란 영국신사 박인환은 이곳에 태를 묻었고, 그 외에도 현존작가 한수산, 이외수와 현대 문단을 채워주는 여러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한국 현대 문단에서 인제만한 문단 기여 군(郡)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하나, 있다는것, 혹은 있었다는 자부심보다도 더 안타까운것은 이들이 있으면서도 그의 그림자도 없고, 있었으면서도 발자취도 없고, 갖고 있었으면서도 알리는 힘이 극히 미약한 우리들의 자세라 하겠다.

이름을 남기고 기억될 수 있는 업적을 쌓은 이들이 마음 쏟고 머물러 싶어 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였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저 하는 우리들의 의식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마음이 바로 우리 이 고장을 넓은 땅 산수가 빼어난 설악에 포옹되어 있는 고장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알리는데, 아니 스스로 알려졌기에 우리 고장을 고작 설악의 인제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도래란 시대적 조류에 현명하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에 편승하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찌워 가꿔놓은 인문적 고귀함을 갈고 닦아 있는것 만큼은 필히 알고, 또 아끼고 알려서 현대 한국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고장인 인제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우리들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실감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제가 과거도, 현제도 또한 미래에도, 문단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다방면에서 한국의 귀한 인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약적 발판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의하여 잠자는 인제의

문화적 태동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 이제 2～3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알리기 위한,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 우리들에 의해서 펼쳐졌다.

그중 가까운 것이 금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에서 우리의 "숯둔골 숯굿기"가 3위 입선하였고, "한계고성의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태백 문화의 일변을 창출하는 복고적 바탕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온고지신의 강한 의식이 잉태됨을 기화로 우리들 외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朴寅煥 詩人의 모습〉

즐겨 읊조리고 사랑받는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등의 대표작을 남긴 한국의 MORDENIST 박인환의 시비를 그가 태어난 인제에 건립하여 그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의 업적을 이어 받아 미래의 인제, 한국 현대시의 산실인 인제가 되게 하고자 "박인환 시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건립 추진에 한마음을 모으고 있게 되었다.

하나가 곧 열이요, 열이 곧 하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고장의 문화적 맥락을 발굴, 이어가는 사업이 시작됨은 곧 이 고장의 문화 창달의 기틀은 물론 태백문화 창달에도 지대한 발전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6.25의 전사적 기념비는 도처에 산재하여 있으나 문인비는 인제의 하늘이 열리고는 처음 건립됨에 더욱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총화적 범주에서 인제 문화 창달 의욕이 만연 된다면 미래의 한국 문단이 곧 인제의 문단일것 임에 확신을 가진다.

이제 박인환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고 그의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양질의 인제 문인이 토출되어 그 업적과, 사상과, 정신이 세계에 펼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다 건립된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요, 시작이 곧 완성의 기틀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믿고, 보다 더 차원있는 조형적 가치를 부여하여 한국 제일의 시비를 만들 수 있게 인제의 문화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보탬이 되어 인제문화의 일취월장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욱이 인제군의 질 높은 "인제공원 개발"로 인제의 진입부에 정녕 공원다운 공원으로 다듬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욕과 투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공원에 이 시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금상첨화격으로 의의있고 그 가치는 물론 크나 큰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명년 4월이면 잘 짜여진 공원에 둘러쌓인 아름다운 자연석에 부각된 "세월이 가면"이란 박인환 시비를 생각하기만 하여도 입가에 웃음이 피어나고 가슴이 부풀어 오름을 느낀다.

끝으로 인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이 시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정녕 이어 받아 태백문화를 창출하는 인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 귀한 존재를 잉태시킨 김세기 군수님과 행정요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詩를 쓴다는 것은 내가 社會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意志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박인환 선시집」의 후기 중에서 (1955년 9월 30일)

박인환의 생애

1926년 8월 15일 소양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 인제면 상동리 159 번지의 강촌 마을에서 4男 2女중 만아들로 태어났다. 박인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멋을 알게 해 주었고, 어머니는 문학을 알게 해 준 스승이기도 했다.

11세 때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덕수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14세 때 경기중학교에 입학 1941년 3월 16일 경기중학을 그만 두었다. 그후 한성학교 야간부에 잠깐 다니다가 다시 황해도 재령에 있는 명신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이후 관립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그는 종로 3가 2번지, 지금의 파고다 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교동 골목 입구에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열었다가 2년만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점을 하면서 문단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나중에 부인이 된 이정숙도 여기서 만났다.

1946년 「거리」라는 시를 「자유신문」에 발표하면서 박인환의 시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 되었다. 1947년 「군상」을 발표 「아메리카 영화시론」등 영화평을 썼다.

1948년 23세의 나이 때 이정숙과 덕수궁 앞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49년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간행하면서 모더니즘의 기수로 활동했다.

1949년 「경향신문」의 기자와 1951년 종군기자로 활약하다가 1955년 대한 해운공사에 입사하여 남해호에 승선하여 미국에 다녀오면서 같은 해 「박인환 선시집」이 간행되었고, 그는 해운공사를 그만 두면서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고 가끔 부인과 친구들에게 「천재는 요절하는 것이 운명이니까 나도 빨리 죽을 지 모르지」라고 하면서 벌써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기 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1951년 동경에서 객사한 이상(李箱)의 추모의 밤을 위한 자리에서 이진섭에게 「인간은 소모품. 그러나, 끝까지 정신의 섭렵을 해야지」하는 글을 써 주었다. 이 글이 그의 마지막 글이 되었다.

1956년 3월 20일 저녁 9시 그는 세종로의 자택에서 눈을 감지 못한채 심장마비로 급서 하였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도 박인환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고 모두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 섭렵(涉獵) : 온갖 책을 널리 읽음.

— 박인환 시인 약력 —

1926년 (1세) 8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159번지에서 태어나다. 아버지 박광선씨와 어머니 함숙형씨 사이의 4남 2녀 중 맏아들.

1933년 (8세) 인제 보통 학교 입학

1936년 (11세) 서울로 이주. 원서동에서 거주. 덕수공립보통학교에 편입 시험을 치르고 4학년에 편입함.

1939년 (14세) 경기중학교(5년제) 입학.

1941년 (16세) 3월 16일, 경기중학교 자퇴하고, 한성학교 야학을 다님.

1942년 (17세) 황해도 재령 명신중학교(5년제, 기독교 재단)에 편입 시험을 치르고 편입하다.

1944년 (19세) 명신중학교 졸업. 관립 평양 의학전문학교 입학.

1945년 (20세) 8·15 광복을 맞아서 학업 중단하곤 서울로 돌아옴. 종로 3가 2번지 낙원동 입구에서 서점 「마리 서사」를 경영한다. 이후 김광균 시인, 김기림 시인등 많은 문인들을 만나다.

1946년 (21세) 시 〈거리〉를 발표. 시 작품 활동 시작.

1948년 (23세) 봄에, 이정숙씨와 덕수궁에서 결혼식을 올리다. 자유신문사에 문화부 기자로 입사. 「신시론」동인으로 제1집 발간에 참여. 12월 첫째아들 '세형' 태어남. 세종로 135번지로 이거.

1949년 (24세) 김경린, 임호권, 김수영, 양병식 시인과 함께 「신시론」의 동인 5인 합동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출간에 시 5편으로 참여하다.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각광을 받다. 경향신문사에 입사.

1950년 (25세) 모더니즘 동인 그룹 '후반기(後半紀)'에 참여. 6.25동란 일어나다. 9월에 딸 '세화' 출생. 12월에 가족 대구로 피난.

1951년 (26세) 경향신문사가 대구에서 전선판 신문을 발행함에 따라서 기자 및 종군 기자로 활약. 5월에 발족한 종군 작가단에 참여. 가을에 부산으로 이주.

1952년 (27세) 6월 16일 부산에서 국제 신보사가 발행한 당시의 「주간 국제(週刊 國際)」지의 〈후반기 특집〉에 시론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을 씀. 경향신문사 퇴사. 대한해운공사 입사.

1953년 (28세) 5월 둘째아들 '세곤' 태어나다. 7월 중순 무렵 서울에 돌아오다. 서울에 오기 전 광복동 다방에서 '후반기' 동인 그룹의 해체론이 있었음.

1955년 (30세) 3월 5일, 대한 해운공사 소속 '남해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을 다녀오다. 기행시 및 기행문을 쓰다. 대한 해운공사 퇴사. 첫 시집 출간 준비를 하여서 10월 15일 「박인환 선시집」을 내다.

1956년 (31세) 시 〈세월이 가면〉등을 쓰다. 3월 20일 밤 9시,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다. 9월 19일 추석에 문우들이 망우리 묘소에 시비(詩碑)를 세우다.

木馬와 淑女

〈대 표 작〉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木馬를 타고 떠난 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
木馬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少女는
정원의 草木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愛憎의 그림자를 버릴 때
木馬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孤立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燈臺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木馬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通俗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木馬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 목메어 우는데

거 리

〈1946년 「자유신문」 데뷔 작품〉

나의 시간에 스코올과 같은 슬픔이 있다
붉은 지붕 밑으로 鄕愁가 광선을 따라가고
한없이 아름다운 계절이
運河의 물결에 씻겨 갔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간 날의 童話를 운율에 맞춰
거리에 花液을 뿌리자
따뜻한 풀잎은 젊은 너의 탄력같이
밤을 地球 밖으로 끌고 간다

지금 그곳에는 코코아의 시장이 있고
과실처럼 기억만을 아는 너의 음향이 들린다
少年들은 뒷골목을 지나 교회에 몸을 감춘다
아세틸렌 냄새는 내가 가는 곳마다
陰影같이 따른다.

거리는 매일 맥박을 닮아 갔다
베링 해안 같은 나의 마을이
떨어지는 꽃을 그리워 한다
황혼처럼 장식한 女人들은 언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거리를 순백한 式場으로 만든다

戰庭의 樹木 같은 나의 가슴은
베고니아를 끼어안고 氣流 속을 나온다
망원경으로 보던 千萬의 미소를 회색 외투에 싸아
얼은 크리스마스의 밤길로 걸어 보내자

고향에 가서

〈1951년 종군 작가단으로 인제방문시 작품〉

갈대만이 한없이 무성한 土地가
지금은 내 고향.

山과 강물은 어느 날의 繪畫
피 묻은 전신주 위에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학교도 군청도 내 집도
무수한 포탄의 작열과 함께
세상엔 없다.

인간이 사라진 고독의 神의 토지
거기 나는 동상처럼 서 있었다
내 귓전에 싸늘한 바람이 설레이고
그림자는 망령과도 같이 무섭다.

어려서 그땐 확실히 평화로왔다.
운동장을 뛰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와 내 동무들은
지금은 없고
연기 한 줄기 나지 않는다.
황혼 속으로
感傷 속으로
車는 달린다.
가슴 속에 흐느끼는 갈대의 소리
그것은 비창한 합창과도 같다.

밝은 달빛
은하수와 토끼
고향은 어려서 노래 부르던
그것뿐이다.

비 내리는 斜傾의 십자가와
아메리카 工兵이
나에게 손짚을 해 준다.

"당신이 읊은 情景의 공원에 당신의 귀한 시비를…"

여름날에 호숫가
가을에 공원
그 벤취 위에
나뭇 잎은 떨어지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박인환 시비가 건립될 아미산 인제군립공원 조감도〉

— 朴寅煥 詩碑 建立 推進 委員會 現況 —

○ **설립일자** : 1987년 12월 5일
○ **위 원 장** : 김진용
○ **추진위원** : 박해순 방효정 이명철 이승호 정재학 전상규 황범식 박주화 김응식 심영지 김진용 이규해 차종진 변완기 정병석 박성종 정인식 심상우 장석만 엄규완
○ **사 무 실** : 인제문화원

■ 제33회 강원도 과학전람회
학생부 특상 입선작 ■

"소양호와 그 유입하천의 어패류 상에 관한 연구"

최 승 일
(인제종합고 교사)

〈소양호 전경〉

I. 서 론

우리 고장 인제는 소양호와 그 유입 하천인 서화천, 인북천, 내린천의 합류지점이다. 1972년에 구축된 소양호는 북한강 상류에 있는 의암호로 흘러드는 2개의 지류 중의 하나로 거대한(2,703㎢) 인공 담수호이며, 그 상류와 더불어 어,패류가 호수 및 하천 생태계의 주류를 이룬다. 지금까지 소양호의 어,패류에 관한 보고는 있으나, 그 유입하천의 연구는 어류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며, 패류에 관한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에 어,패류를 조사하여 1) 어,패류 목록을 만들고, 2) 지표종(indicator species)에 따른 간접적 수질오염을 판정하여, 3) 지리적 분포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양호의 조사를 남전리(St. 1)로 국한 시켰고, 그 유입하천은 채집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년에 걸친 어,패류 변동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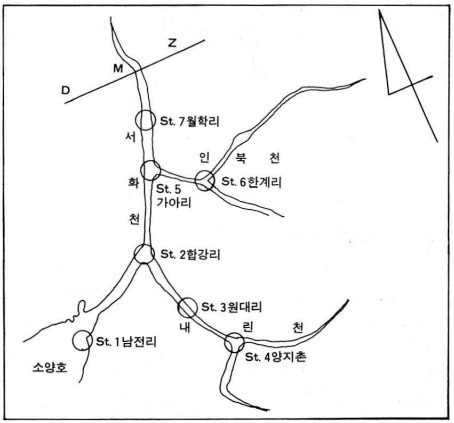


그림 1 채집지(남전리, 합강리, 원대리, 양지촌, 가아리, 한계리 월학리)

표 1 패류 목록

Class	Gastropoda
Subclass	Prosobranchia
Order	Mesogastropoda
Family	Pleuroceridae
	Semisulcospira Coreana
	S. gottschei
	S. nodifila
	S. giobus
Subclass	Pulmonata
Order	Basommatophora
Family	Lymnaeidae
	Redix auricularia
Class	Pelecypoda
Order	Palaeoheterodonta
Family	Unionoidae
	Unio douglasiae

표 2 각 지역별 패류 분포

종 \ 지역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emisulcospira coreana(참다슬기)	+	+	+	+	+	+	
S. gottschei(곳체다.)	+	+	+	+	+	+	+
S. nodifila(염주다.)		+	+	+	+	+	+
S. globus(구슬다.)		+	+		+	+	
Redix auricularia(물달팽이)	+	+					
Unio douglasiae(말조개)	+	+					

Ⅱ. 연구방법

'87. 3. 1～6. 13사이에 2회에 걸쳐 그림 1 의 각 site 별로 어류는 초(綃)코그물(40m), 족대, 투망, 낚시, 어항으로, 패류는 collecter(0.7㎝×0.7㎝)와 핀셋으로 채집하여 즉시 10%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실험실로 가져와서 최와 정의 도감에 따라 어류를, 유의 도감과 권의 목록에 따라 패류를 동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패 류

채집된 담수산 패류는 2강 3목 3과 3속 6종으로, Gastropoda 가 5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Pelecypoda 는 말조개(*Unio douglasiae*) 1종 뿐이었다. 채집된 6종 중에서 염주다슬기는 모두가 소양호의 상류인 St. 2～St 7 사이에서 채집되었다. 특히 염주다슬기는 전체 모양이 난원형인 염

표 3 어류목록

Family	Osmeridae
	Hypomesus olidus
Family	Cyprinidae
Subfamily	Cyprininae
	Moroco oxycephalus
	M. sp
	Zacco platypus
	Z. temminchi
	Opsariichthys bidens
	Pseudogobio esocinus
	Gonoprokopterus mylodon
	Coreoleuciscus splendidus
	Pungtungia herzi
	Hemibarbus labeo
	H. longirostris
	Cyprinus carpio
	Carassius auratus
Subfamily	Rhodeinae
	Acheilognathus signifer
Subfamily	Gobiobotinae
	Gobiobotia brevibarba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Family	Cobitidae
	Misgurnus anguilicaudatus
	Cobitis koreensis
	C. rotundicaudata
Family	Bagridae
	Pelteobagrus fulvidraco
	Pseudobagrus ussuriensis
	P. sp
	Liobagrus andersoni
Family	Siluridae
	Parasilurus asotus
	P. microdorsalis
Family	Channidae
	Channa argus

Serranidae
Coreoperca herzi
Siniperca scherzeri
Eleotridae
Odontobutis obscurus

주모양을 한다. 이런 체형을 갖기 때문에 빠른 수류에도 적응할 수 있다.

각 채집지역에 따른 종의 분포(표 2)를 보면 곳체다슬기는 모든 지역에서 채집되었으며, 말조개는 하류인 St. 1과 St. 2에서만 채집되었다. 이는 말조개가 진흙에 패각을 넣어 살기 때문에 진흙이 퇴적된 하류에서만 채집된 것으로 생각되고, 곳체다슬기는 자갈과 바위에 부착되어 살므로 어느 지역이나 채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St. 2에서 Pelecypoda와 Gastropoda가 모두 채집된 것은 St. 2가 서화천과 내린천이 합류되는 거대한 소(沼)이며 또한 바닥이 모래와 자갈,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내린천(St. 3, St. 4)과 서화천(St. 5, St. 7)의 패류 분포는 비슷하였다.

2. 어 류

채집된 어류는 8과 24속 30종으로 Cyprinidae(잉어과)가 16종으로 1/2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3).

각 채집지역에 따른 종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St. 2에서 가장 많은 종이 채집되었고, 이는 St. 2가 서화천과 내린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서 깊은 소(沼)와 여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소성(好沼性)어족과 하천성 어족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St. 1에서 볼 수 있는 호소성 어족인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끄리등이 채집되었고, St. 4, St. 7에서 볼 수 있는 하천성 어족인 쉬리 등이 채집되었다. 버들치(*Moroco oxycephalus*)가 St. 4, St. 6, St. 7에서만 채집된 것은 그 지역이 버들치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상류·계류이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꺽지, 쇠리, 배가사리가 모두 St. 2~St. 7에 걸쳐 채집된 것은 그 지역이 꺽지, 쉬리, 배가사리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중,상류성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중,상류성 어족인 어름치가 St. 4, St. 6에서만 발견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는 St. 2, St. 3, St. 5, St. 7이 St. 4, St. 6보다 다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t. 6에서는 어름치의 산란 장소도 확인하였다.

피라미는 상류의 St. 4에서는 채집이 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갈겨니가 채집된 것은 St. 4가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임을 암시해 준다. 즉, 버들치→갈겨니→피라미→붕어(잉어)의 서식 순으로 오염의 정도가 심하고, 하류성(호소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인북천, 서화천, 내린천에 각기 갈겨니 구역이 있는 것은 각 하천이 정상적임을 말해준다.

St. 7에 비해 St. 4에 종의 수가 적은 것은 St. 4의 생태계 파괴가 경미하며, 내린천의 어류상이 서화천의 그것보다 원시상태에 가까움을 암시해 준다. 게다가 St. 7에서는 피라미와 갈겨니가 공존하고 있지만 St. 4에서는 갈겨니만 서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상류에는 버들치가 우점종 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춘천에서도 열목어가 서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St. 6의 상류인 백담천과, St. 4의 상류인 미산천에서만 채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강해성 어류(뱀장어 등)와 소하성 어류(송어, 연어 등)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한강 하류의 오염과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소양댐으로 인하여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각 지역별 어류 분포

종 \ 지역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Hypomesus olidus(빙어)	+	+					
Moroco oxycephalus(버들치)				+		+	+
M. sp(금강모치)				+ ?			
Zacco platypus(피라미)	+	+	+		+	+	+
Z. temminchi(갈겨니)			+	+		+	+
Opsariichthys bidens(끄리)	+	+	+		+		
Pseudogobio esocinus(모래무지)	+	+	+		+	+	+
Gonoprokopterus mylodon(어름치)				+		+	
Coreoleuciscus splendidus(쉬리)		+	+	+	+	+	+
Pungtungia herzi(돌고기)	+	+	+	+	+	+	+
Hemibarbus labeo(누치)	+	+	+		+		
H. longirostris(참마자)	+	+	+	+	+	+	+
Cyprinus carpio(잉어)	+	+	+		+		
Carassius auratus(붕어)	+	+	+		+		
Acheilognathus signifer(묵납자루)						+ ?	+ ?
Gobiobotia brevibarba(돌상어)		+	+	+	+	+	+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배가사리)		+	+	+	+	+	+
Misgurnus anguilicaudatus(미꾸리)	+	+	+		+		
Cobitis koreensis(참종개)	+	+	+	+	+	+	+
C. rotundicaudata(새코 미꾸리)	+	+	+	+	+	+	+
Pelteobagrus fulvidraco(동자개)	+	+	+		+		+
Pseudobagrus ussuriensis(대농갱이)		+		+			+
Pseudobagrus sp(눈동자개)				+		+	+
Liobagrus andersoni(퉁가리)	+	+	+	+	+	+	+
Parasilurus asotus(메기)	+	+	+		+	+	
P. microdorsalis(미유기)		+	+		+		
Channa argus(가물치)	+						
Coreoperca herzi(꺽지)		+	+	+	+	+	+
Siniperca scherzeri(쏘가리)	+	+	+		+		
Odontobutis obscurus(동사리)	+	+	+	+	+	+	+
계 : 30종	18	23	22	16	21	18	18

원구류(Cyclostomata)도 같이 조사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와 금강모치(*Moroco sp.*)의 서식이 거의 확실시 하나 채집을 못하였다. 가물치(*Channa argus*)가 St. 1에서만 채집된 것도 특기할만 하다.

3. 수 질

화학적 수질판정(DO, BOD, COD)은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생물은 그 곳에 많은 시간을 점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서 수질을 판정하는 것이 좋다.

표 5에서 보듯이 St. 1, St. 2, St. 3, St. 5의 우점종은 피라미였고, St. 4, St. 6, St. 7의 우점종은 갈겨니였다. 즉, 상류로 갈수록 갈겨니가 피라미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St. 4, St. 6, St. 7은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덜되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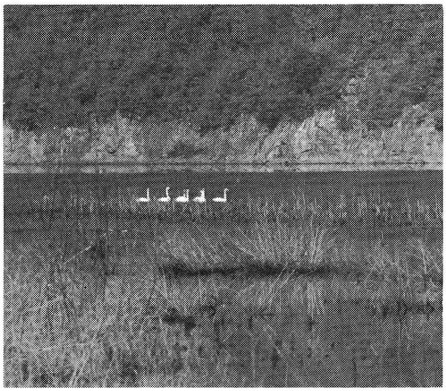
표 5 각 지역별 지표종(Indicator Species)

지역	지 표 종 서 열
St. 1	피라미-누치-붕어-쏘가리-잉어-가물치
St. 2	피라미-누치-쏘가리-붕어-잉어
St. 3	피라미-누치-쏘가리-갈겨니
St. 4	갈겨니-어름치-버들치-금강모치
St. 5	피라미-누치-쏘가리
St. 6	갈겨니-피라미-어름치-버들치
St. 7	갈겨니-피라미-버들치

St. 1, St. 2, St. 3, St. 5중에서 St. 3에만 갈겨니가 서식하므로 St. 3가 덜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St. 1, St. 2, St. 5중에서 St. 1, St. 2에서만 붕어, 잉어가 서식하므로 St. 5가 덜 오염되어 있을 것이다. St. 1, St. 2중에서 St. 1에 가물치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오염의 정도가 좀 더 심하리라고 생각된다.

St. 4, St. 6, St. 7주에서는 St. 4에서만 피라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St. 4가 덜 오염되어 있을 것이다. St. 6, St. 7중에서 St. 6에서만 어름치가 발견되었으나 갈겨니와 버들치의 서식으로 보아 서로 비슷한 수질임이 짐작된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오염의 정도는 St. 1〉St. 2〉St. 5〉St. 3〉St. 7〉St. 6〉St. 4 순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St. 4는 1급수인 빈부수성이고, St. 6, St. 7, St. 3은 1급수와 2급수의 경계수역이며, St. 1, St. 2, St. 5는 2급수인 β 중부수성일 것이다. 또한 서화천과 내린천의 합류지점인 St. 2를 기점으로 St. 5, St. 7과 St. 3, St. 4를 비교해 보면 내린천이 서화천보다 생태계의 파괴가 경미하며, 덜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집지 소양호 상류의 고니 떼〉

Ⅳ. 결론 및 제언

채집조사된 패류는 2강 3목 3과 3속 6종이었다(표 1). 곳체다슬기는 모든 지역에서 채집되었고, 말조개는 하류인 St. 1, St. 2에서만 채집되었다. 깊은 소와 여울로 이루어진 St. 2에서 Pelecypoda와 Gastropoda가 모두 채집되었다(표 2).

채집된 어류는 8과 24속 30종 이었고 (표 3), 잉어과(Cyprinidae)가 16종으로 약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St. 1, St. 2, St. 3, St. 5의 우점종은 피라미였고, St. 4, St. 6, St. 7의 우점종은 갈겨니였다. St. 2에서 다양한 호소성 및 하천성의 많은 종이 채집되었다(표 4). 강해성어류, 소하성어류 및 원구류(Cyclostomata)는 발견할 수 없었다.

버들치 → 갈겨니 → 피라미 → 붕어(잉어)의 서식 순으로 오염의 정도가 심하며, 하류성(호소성)이었다. 각 site 별 수질오염 순위는 St. 1〉St. 2〉St. 5〉St. 3〉St. 7〉St. 6〉St. 4 이었다. 즉, St. 4는 1급수인 빈부수성이고, St. 6, St. 7, St. 3은 1급수와 2급수의 경계수역이고, St. 1, St. 2, St. 5는 2급인 β 중 부수성이었다. 내린천이 서화천보다 생태계의 파괴가 경미하며, 덜 오염되어 있다.

〈채집지 인제 앞 강〉

우리 사람은 자연물과 더불어 미묘한 자연법칙 아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 왔고, 또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영영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장구한 세월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누구나가 자랑하는 우리의 하천, 우리의 담수자원을 우리가 보호하는 정신이 생활화 되기를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1. 권오길, "남,북한강 담수산 패류의 분포상에 관한 연구", 「한국패류학회지」(제Ⅰ권 1호) PP. 1 – 4.
2. 권오길, "소양호에 서식하는 담수산 연체동물에 관하여", 「강원대학교 논문집」(제ⅩⅦ 1982, Vol. 17) PP. 89 – 92.
3. 권오길, "한국 비해산 패류 목록", 「한국육수학회지」(Vol. 1 – 2) PP. 25 – 33.
4. 길봉섭, "담수산 이 매패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육수학회지」(Vol. Ⅸ, No. 3 – 4) PP. 29 – 38.
5. 유종생, 「원색 한국 패류 도감」(서울, 일지사, 1983).
6. 정문기, 「한국동물도감(어류)」(서울, 문교부, 1961).
7. 조규송, "생물학적 수질의 판정법", 강원대학교 부설 내수자원연구소 「내수면 조사연보」(제Ⅳ 1983), PP. 25 – 36.
8. 조규송, "소양호 다목적 댐호의 육수학적 연구(1)", 「한국육수학회지」(Vol. Ⅶ, No. 1 – 2) PP. 63 – 70.
9. 최기철, 「강원의 자연(담수어편)」(서울, 정문사, 1986).
10. 최기철, "휴전선 이남에서의 담수어의 지리적 분포에 관하여", 「한국육수학회지」(Vol. Ⅵ, No. 3 – 4) PP. 29 – 36.

지명 유래 및 전설

이 태 두 (갑둔국교 교사)

◆갑둔리와 김부리의 지명 유래◆

갑둔리라 하면 서낭거리를 포함하여 수거재 서쪽 일대를 말한다. 갑둔은 홍천 — 인제간 국도에서 10km. 옛날 역이 있던 부평에서 16km. 인제(현)에서 30km 떨어져 있고 해발 500 ~ 700의 산간고지로 교통이 불편한 편이긴 하지만 땅이 기름지고 산채류가 풍부하여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약 300여 호 이상 거주했었다고 한다.

갑둔의 옛 이름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갑(甲)자는 "갑옷" 또는 으뜸의 뜻이 있으며 둔(屯)자는 "둔전"의 뜻이다. 둔전이란 옛날에 군사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땅이다. 따라서 갑옷은 군사와 관련이 있고 으뜸 또는 제일의 뜻으로 볼때 그 옛날 많은 군사들이 이 곳에 주둔하고 훈련하면서 군량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가 이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에 이 지역의 지명 유래를 다섯가지 측면에서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지역은 고대 국가인 고구려와 신라의 지역으로 자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고구려 또는 신라의 군사들에 의해 생겨난 지명 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부리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적고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장기간 군사가 주둔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일 신라 말기에 신라에서는 왕권 다툼이 잦고 부패하자 왕위계승에서 실패한 많은 왕족과 그를 따르던 귀족들이 서울(경주)을 떠나 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며, 이들은 한 고을을 차지하고 지방 호족이 되어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규합하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던 일이 많다. 그러므로 신라의 왕손인 김부(金富)라는 사람이 신라의 어지러운 사회를 등지고 현 김부리에 들어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김부리를 근거지로 인근 고을에 세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왕의 칭호를 받았을 지 모른다.

세째,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치므로써 신라 천년의 사직이 싸워 보지도 않고 없어지게 되자 이를 반대하던 세력이 있었다. 이때 태자는 한을 먹음고 삼베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하며 둘째 왕자는 해인으로 가버렸다한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왕자나 왕손이 한 무리를 이끌고 김부리에 들어와 이곳을 근거지로 군사를 양성하고 세력을 다져가며 고려에 항거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째로 마의 태자가 문헌상으로는 금강산에 들어 갔다고는 하나, 그 행방이 실제로는 위장이 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잃은 나라를 다시 찾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의 태자를 왕으로 모시면서 김부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근거로는 김부리에 대왕각이 세곳에 있었는 데 그중 상단지골에 있던 대왕각에는 "경순대왕일자지신"이라는 위패와 많은 보물들이 있었다고 한다(이근우씨 증언).

다섯째로 경순왕은 40세에 고려에 항복하고 고려 태자보다 상위적인 정승의 직위를 받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으며 태조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43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때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 많은 처첩도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불만이 많은 자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선대의 왕손임을 내세워 행세하였을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위 다섯가지 가정중 그 어느것 하나도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신라 왕손의 무리가 이 지역에 들어와 김부라는 사람을 최고 통치자로 옹립하여 군사를 양성하고 중앙 통치를 배제하며 김부리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 양구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이 갑둔 곳곳에서 불에 녹은 돌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옛날에 쇠를 녹여 병기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이곳에 이미 1000여년 전에 마을이 형성 되었다는 것은 김부탑의 명문에서 알 수 있고 그 후로도 이곳의 지형적 여건은 유배자나 도피, 은신자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옛무덤의 묘비에 '···· 대부'의 직급이 적힌 비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옥 터 골◆

옥터란 옛날에 죄인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지형적으로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고 감시가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감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추종하는 강력한 집단 체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고려나 이조의 왕정 체제에 의한 죄인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관성으로부터 교통이나 통신이 매우 불편한 오지이므로 행정적 감시 체제가 불가능 하였다. 또한 일반 유배자라면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옥터골에 있었을 감옥은 갑둔리와 김부리에 웅거하던 통치자와 그 집단이 그 체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옥이 설치되었던 곳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명 유래로 볼때 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항 변 골◆

항변골은 김부의 남방에 있는데 항병이란 군사들이 싸움에서 싸울 뜻을 버리고 항복한다는 뜻이다. 어떤 세력 간에 있었던 싸움이며, 어느 편이 항복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김부 통치체제와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고구려와 신라간의 접경 지대였던 이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첩첩 산중인 이 지역이 큰 싸움터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전쟁이 있어도 소규모의 전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김부 통치 체제에 의한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믿어진다.

◆수거 너머◆

서낭 거리와 김부리 사이에 큰 고개가 있다. 오늘날은 자동차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옛날에도 이곳으로 통하는 고갯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김부 대왕이 이 고개를 넘어 다녔는데 수레를 타고 넘다가 산이 하도 험하여 칡넝쿨이 많아 수레를 내버려 두고 걸었던 모양이다.

수레 두대를 만들어 고개 양쪽에 두고 고개만 걸어서 넘어가 평지에서는 수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수레를 남겨 두었던 고개 양쪽을 모두 '수거넘어'라고 부른다. 이 권력자는 칡넝쿨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하여 부하들에게 칡넝쿨을 모두 없애라고 하였단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갑둔리와 김부리 일대에는 칡넝쿨이 매우 드물고 있어도 무성하지 못하다.

◆맹 개 골◆

맹개골이란 만가란 말이 변한 말로 이 뜻은 우리나라 구전 민요의 하나로서 상여를 메고 갈 때나,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흙을 다지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는 고려 초기에 이 곳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맹개골 부근에 묻었는데 이 곳에서 만가가 자주 불렀을 것이다. 지금도 이 곳에 상여를 보관하는 화채간이 있고 이 부근에 여러 개의 고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만가골이란 말이 변해서 맹개골이 된 듯하다. 또 하나의 가정은 이 지역에서 맹장군이 신라의 재건을 꿈꾸며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따라서 맹장군이나 맹장군의 자손들이 살던 집이 있었던 곳이므로 맹가골로 불려졌고, 이 말이 후세에 변해서 맹개골로 되었을 지도 모른다.

◆서낭 거리◆

서낭이란 옛날 사람들이 큰 나무에 신이 있다고 모셔 위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예를 표하고 지나가며 일년에 한 두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동네에 흉한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빌기도 하던 곳이다.

이 서낭은 갑둔국민학교 운동장 서남쪽가에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매우 큰 엄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밑둥의 크기가 열두 사람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의 가지로 만든 두주를 이홍운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름이 1.2미터나 된다. 서낭 부근에는 일반적인 집이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부지에서 도기 파편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황당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릇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이것들의 깨어진 조각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낭 거리의 중심이 되는 길이 서낭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하는데 대개의 서낭은 길가나 고개 마루에 있었다.

◆단 지 골◆

단지골은 김부리 북쪽에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단지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방법의 하나인데 발 뒤꿈치를 자르는 벌이 었다고 한다. 이것은 김부 통치 체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단죄란 말이 변화된 것일 수도 있다.

◆옥쇄 바위◆

김부리 단지골에 가면 옥쇄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다. 큰 바위 위에 넓적한 바위가 올라 앉아 있는데 옛날에 왕이 이곳에다 옥쇄를 감췄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 온다.

◆맹 창 골◆

맹창골 역시 김부의 충실한 신하였던 맹장군과 관련되어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즉 맹장군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일 것이다. 김부 왕궁이 있었다면 지형적으로 보아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김부리 중심의 양지 바른 곳에서 가까운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맹창골이 있다.

◆김부5층석탑◆

이 탑은 탑골에 있었는데 고려 정종2년(서기 1036년)에 세워진 탑이 었으나 그후 누구에 의해 선가 의도적으로 파손되었다.

기단 지대석과 옥석 3개가 완전히 두동강이 난 상태로 흩어져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옥신은 최근에 멧돌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지명만이 탑골이라 불리워 왔을뿐 지역 주민중 탑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87년 5월 5일 리태두 교사가 이 곳을 답사하여 탑 기단부의 하대석과 면석 및 옥신 반 조각을 발견하고 그 후 동료 직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탑의 부품을 찾는 작업을 벌린 결과 옥신 3개와 갑석을 찾아 내는 한편 부도 또는 석등의 보개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것 1개와 그 하대석 1개를 찾아냈다.

처음 이 탑을 발견했을 때, 기단부의 면적에서 음각된 애서체의 글씨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후 이 명문을 수차 탁본하여 각종 문헌을 찾아 가며

판독한 결과 4행 35 — 36자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살계불자구상주(菩薩戒弗子仇上主)
김부수명장존가(金富壽命長存家)
오층석탑성영충공(五層石塔成永充供)
양대평십육년병자팔월일입(養大平十六年丙子八月○日)

여기에서 1행의 "弗子"는 "弗子"인지 "弟子"인지 아니면 "廿弗子"인지 분명치 않다. 위에서 ○안의 글씨는 잘 알 수 없는 글자이다. 또한 대평이란 연호는 글안의 연호로서 이 연호는 글안 성종 10년(1030)까지 밖에 사용치 않았고 1036년은 금안 홍종이 "중희"라는 연호를 사용하던 때다.

그러나 이 탑에서 "대평"이란 연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역의 교통과 통신이 매우 불편하여 탑을 만든 사람이 1030년 이전에 이곳에 들어와 이 탑을 만들었던것 같다.

이 탑의 명문 내용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 상주 김부의 수명을 오래도록 보존토록 해달라는 기원으로 석탑을 세우고 오래도록 공양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상주 김부"라는 뜻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부라는 사람이 존재하였음이 호가실하며 '상주'라는 말이 통치자의 본래의 직위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갖추었더라도 공식적으로 '왕'이란 호칭을 할 수 없었으나 일반 주민들은 '김부 대왕'이라 불렀을 것이다. 이 탑의 명문과 같은 양식은 고려의 강감찬이 글안 침략을 물리치고 개성 흥국사 석탑을 세웠는데 이 탑에 있는 명문의 문구에서 "보살계제자평장사 강감찬 "····· 영충공양 시전회 5년5월일야"에서 보이며 충북 제천 한수면 송계리 소재 사지민신사지석탑의 명문에서 "경조구층석탑일좌 영충공양 대평이년 4 월일근기"에서도 보인다. 이 세탑에서의 공통점은 연대가 1021 — 1036 년으로 같은 시대이며 모두 기원탑으로 세운 사람, 기원 내상 조탑 연유, 세운 연대의 차례로 씌어 있다는 점이다.

이 탑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대석(100 × 100 × 20cm)에는 네 옆면에 ☙ 모양의 무늬가 세쌍씩 음각되어 있고 대석위에 면석(59 × 57 × 42cm)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면석에 우주가 음각되어 있고 명문이 있다. 그 위에 갑석이 있는데 3단의 받침위에 1층 옥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옥석은 3단의 직석으로된 옥개 받침이 있고 낙수면은 양끝이 위로 향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전각은 아래로 좁혀져 있어 투박함을 피하였다. 3중옥석 밑쪽에 직경 11.5cm, 깊이 7cm 정도의 구멍이 파여 있어 무엇을 넣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옥석 최상층부는 밑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윗면은 중심에서 부터 빗살 모양으로 굵게 음각되어 있으며 아아취형이다. 또 중앙에 상하가 같지않은 직경 12cm 정도의 구멍이 있고 구멍 윗쪽 주의에 21 × 21cm 의 네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위에 있던 노반은 사각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탑은 석질이 좋은 화강암으로 곱게 다듬어져 있고 현재 옥신이 없는 상태의 전체 높이는 180cm 정도이다. 이 탑의 명문에 따라 "김부오층석탑"이라 명명하였다.

◆갑 둔 탑◆

갑둔탑은 탑눈지 또는 탑두루(탑뜰이 변한 말)라 불리는 곳에 있다. 현재 학교에서 약 40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 탑의 상층부 2층은 갑둔 국민학교 교정에 옮겨져 있는데 이 탑이 있던 곳에 가서 돌무더기를 파헤쳐 탑의 하대석과 면석을 발견하였다.

하대석의 크기는 115 × 115 × 22cm 로 옆면에 김부탑에 음각된 것과 같은 ☙ 모양의 무늬가 각 면마다 2개씩 음각 되어 있고 그 위에 0.5 × 0.5 × 0.5m 면석이 올려져 비스듬히 쓰러진 채 돌무더기 속에 묻혀 있었다. 발견되기 이전까지 지역 주민 가운데 이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갑석은 3단의 받침위에 102 × 102cm 의 크기이고 선각의 두께는 8cm 로 거의 직선에 가깝다.

낙수면은 1층 옥신 받침 부분에서 곡선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게 조각되었거나 갑석 밑 부분의 받침은 제일 아래의 것이 44 × 44cm 인데 옥신 받침은 73 × 73cm 로 보아 옥신을 바치는 또 다른 받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부터 둘째 옥신은 38 × 38 × 38cm 의 크기로 우주를 나

타내는 선이 음각되어 있고 옥석은 3단의 옥개 받침을 가지고 있으며, 낙수면은 약간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한 전각은 7㎝의 두께로 약간 투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옥개석은 최 상층부를 바치는 5㎝의 높이인 옥신이 한돌로 이루어져 있다. 최 상층부 옥석도 같은 양식이나 노반과 보개를 한돌로 이루어 놓았다. 보개에는 김부탑과 같고 중앙에 보륜은 고정시키기 위한 지름 6.5㎝의 구멍이 파여져있다.

이 탑은 김부탑에 비해 석질이 고르지 않고 거친 편이며 크기에 있어 더 큰 탑으로 추정된다. 조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김부탑과 거의 같은 시기로 보여지며 조탑 수법으로 보아 같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더우기, 김부대왕묘를 중심으로 거의 남북으로 같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 탑의 중간 부분은 아대석이 있는 부근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며, 거의 파손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언젠가는 햇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탑은 갑둔리에 있으므로 "갑둔탑"이라 명명했다.

◆탑　　골◆

탑골은 자동차 도로변에서 약 350미터의 거리에 있으며 해발 700미터 지점이다. 탑이 있는 부근은 경사가 완만하고 앞에는 절벽과 우거진 숲 사이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탑 주위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서 샘이 나오는 데 옛날에 샘터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음 수온이 몹시 차다.

이곳에서 도기 파편이 나왔으며 탑 발굴에서도 자기 파편돌이 나왔다. 한편 탑 발굴에서 부도나 석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보개가 발견되었으며 주춧돌로 사용된 듯한 네모로 다듬어진 돌 2개도 찾아냈다.

인공으로 쌓여진 듯한 2단의 석축도 보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온능와 강암늘이 널이 있는데 이 늘온은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이 가해진 돌들 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탑을 세우고 암자 정도의 건물이 있었으며 김부의 영혼을 불심에 기원하는 공양자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탑둔지(탑두루 = 탑뜰)◆

탑둔지라 불리는 곳은 학교에서 동북쪽으로 4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 이름이다. 이곳에 쓰러진 탑의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고 부근에서는 기왓장 파편과 청자, 백자 및 도기류의 파편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런 유물로 보아 옛날에 이곳에 절이나 암자가 있었음이 확실하나 언제 어떤 건물이 있었으며 또 어떻게 없어졌는 지는 알 수 없다. 좀 더 발굴해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나 탑을 만들때 건물도 지어졌으리라 가정하면 고려 초기가 아닌가 한다. 특히나 발견되는 기왓장 파편에 양각의 정교한 무늬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급 스러웠던 건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은 산간고지로 기와를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고래로 일반 민가에서는 기와집을 짓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 만 기왓장 파편이 발견되는데 그 질이 막흙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마을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자 조각은 무늬는 없으나 색깔이 매우 곱고 균열이 고른 점으로 보아 고급의 청자 조각으로 보인다.

◆적성총(고분)◆

맹가골 부근 이 산에 이어 기와 돌무덤이 발견된다. 이 고분돌은 거의 모두 도굴당해 그 원형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도굴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무덤에서 자기 호르병이나 청동제 그릇과 수저등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덤을 이곳 주민들은 '고려장'이라 부르고 있으나 고려장은 고구려 이전에 후장하던 풍습으로 사람이 늙어 생산능력이 없게 되면 광중에 버려 두었다가 죽으면 장사 지냈다고 하는 전설로 봉분의 크기가 웅대하며 많은 부장품을 함께 묻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장의 고분에서는 부장품이 나오기는 하나 빈약하고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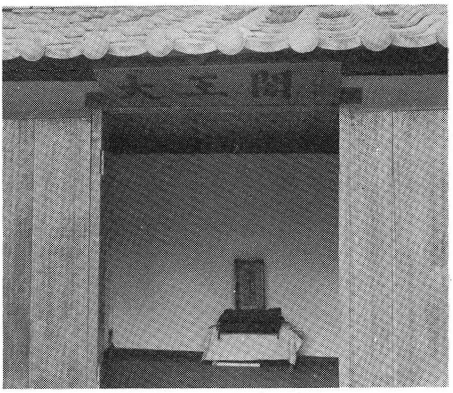
초기의 무덤으로 사람이 죽으면 부장품 및 몇가지를 묻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놓았던 것 같다. 고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신을 중심으로 말지에 유물을 묻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이러한 풍습은 계생사상,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 있으므로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생겨난 풍습이다.

◆김부 대왕묘◆

김부 대왕묘 터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은 오미자골 입구 도로변에 있다. 옛날에 김부 대왕묘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최씨네가 묘를 썼다고 한다. 최씨 집안은 이곳에 묘를 쓴 후 그 자손들이 벌을 받아 죽고 망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쓰러진 망부석과 묘비가 남아 있다. 묘비문에는 "… 통정대부최씨 …, 숙부인 … 의" 글자가 보인다. 통정대부는 이조때 정 3 품 직위로 그 직책은 오늘날의 차관급에 해당된다. 이곳에 묻힌 사람은 나라에 죄를 지어 이곳에 유배되어 왔었거나 당쟁을 피해 이곳에서 은거하다가 죽어 여기에 묻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3년 이곳에 자동차 길을 내기전 까지만 해도 묘 앞에 연못이 있었으며 이 연못을 메우고 길을 냈다 한다. 이 때에 굉장히 큰 비석이 묻혀 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이 곳에는 이씨묘가 있다.



〈이 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김부대왕(마의태자)의 위패를 모신 대왕각〉

◆동학교도은거 집터◆

원갑둔리 산밑에 작은 집이 있다. 현재 이 집에는 황씨네가 살고 있으나 조선 말기 전라도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동학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이 반란에 가담했던 동학교도중의 한 사람이 이곳에 숨어 들어 은신했는데 김씨였다고 한다.

◆원갑둔리 노송◆

원갑둔리 갯가에 노송 한 그루가 옛 선인들이 세월을 탓하며 읊조리던 노랫소리를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다.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으나 30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밑둥의 둘레는 3.66 미터나 된다. 서낭신을 모셨던 서낭거리의 전나무 다음으로 오래된 나무로서 갑둔의 모든 희비애락을 보아 왔을 것이며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이러한 산촌에 묻혀 살던 선인들이 이 나무 밑에서 흘러 가는 시냇물 소리에 장단 맞춰 한숨과 노랫가락으로 시름을 달래던 터를 제공해 준 소나무일 것이다. 이 소나무에서 옛 조상들의 체취를 음미하여 시간의 흐름속에 역사가 이루어짐을 자각하며, 이 소나무와 같이 온갖 풍상에도 견디어 내는 인내와 청순함과 향토애의 교훈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고려사절요」 고전국역총서 13권(1982).
·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동사강목」 (고전역총서 45권 1985).
·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국역총서 129, 130권 1985).
· 강원대 한국사교재편찬위원회, 「한국사의 이해」 (1985).
· 이상오, 「한국의 역사」 (서울, 마당, 1982).
· 한국관광지개발연구소, 「한국관광자원론」 (서울, 1984).

정 월 대 보 름

朴 海 順
(麟蹄郡 鄕土會長)

人間이 한 가정, 社會, 國家를 영위하며 살아가려면 의, 식, 주에 따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제반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우리 先代들은 農耕을 中心으로 生活의 터전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古代 太陰歷을 모체로 그 紀綱에 따라 봄이 오면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가꿔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민족 固有의 文化行事인 세시 풍속을 발전시켜 왔다.

이에 本稿에서는 세시풍속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에 대한 전래풍습을 재 음미 해 봄으로써 조상의 슬기와 풋풋한 향토의 맛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의 일년중 큰 명절로 손꼽히고 있는 정월대보름은 土俗的인 舞俗信仰과 전통적인 범위를 고수하려는 몇가지 禁忌事項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민족의 전통성과 함께 전해져 내려 왔다.

먼저 '설은 나가서 쇠고 보름은 집에서 쇠야 한다', '설은 길어야 하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는 대보름에 행해지고 있는 몇가지 禁忌事項과 독특한 생활양식을 살펴 봄으로써 조상들의 소박함과 슬기를 엿보고자 한다.

첫째로, 물에 대한 금기사항이다. 보름날 아침에 물을 길어 오거나 냉수를 마시면 그 해에 물에 의해 재난을 입거나 모심을 때 비를 맞는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農者天下之大本'이란 조상들의 흙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옛 조상들의 유일한 식수처였던 공동 우물에서 남이 보지 않는 새벽녘에 제일 먼저 물 위에 비친 달의 형상을 떠오면 일년내내 신수대통하며 악운이 없다고 믿었다. 그 첫바가지의 물길음을 '용알뜬다'라고 한다. 이는 예로부터 달을 신성시하고 중요시하는 조상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키 큰 장정에 대한 先好이다. 정월대보름 아침에 키 큰 남자가 들어 오면 그 해 농사는 大豊이라 하여 심지어는 전날 키큰 남자 일꾼을 고용한다는 일례도 있다. 그래서 키가 큰 남자는 이날 최고의 예우와 인기를 한몸에 받았었다.

세째로 이날 아침 식사때에는 김치를 먹지 않는다.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쐐기를 쏘인다는 말에 의한것이며, 또 숟갈로 밥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먹는다는 금기사항은 남의 품팔이 김을 맬때 받고랑이나, 밭이나 논의 제일 넓은 곳을 맡게 된다는 것에 의해서이다.

이렇듯 달과 밀접한 대보름은 다음과 같은 古有風習과 놀이가 전해 온다. 차례로 열거해 보면,

더위 팔기

보름날 해 돋기 전에 남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하는 소리와 함께 그 해 여름의 더위를 미리 남에게 판다는 의미로 '더우 판다'라고 하기도 하며 이때 세사람 이상에게 더위를 팔아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부럼 깨기

음력 1월 15일 새벽에 콩, 옥수수, 밤, 호두등의 부럼을 한입 씹어서 동쪽문 환한 곳에 뱉으면 일년내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는 전래풍습이다.

복 토

복토라는 것은 이웃 부자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이나 뜰의 흙을 몰래 파오는 것으로 이는 그 집의 福을 가져온다고 믿는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때 몰래 가져온 흙은 대개 부엌의 부뚜막에 바르며 부잣집에서는 자기 집 흙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집 안팎의 불을 켜 두기도 한다.

보름 밥

일명 오곡밥, 찹쌀밥, 약밥이라고도 한다. 五穀이라 하면 다섯가지 곡식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하며 지난해 정성들여 거둔 이런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음으로써 풍요로움을 비는 풍습이다. 이때 대추, 밤, 곶감등을 넣어 향미를 내기도 한다. 밥을 지어서 부릿동이, 성루단지, 토왕솥에 넣어 풍년농사를 기원하기도 한다.

귀밝이술

일명 '귀밝게술'이라고도 한다.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을 조금씩 마심으로써 귀밑이 붉어져 귀가 한창 밝아진다는 뜻에서 전해내려오는 말이다.

묵 나 물

무우, 호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등 지난해 뜯어 두었던 묵은나물을 무쳐 먹는 것을 말하며 콩나물, 시금치등 채소류등도 먹기도 하고 달래, 냉이등 나물류를 오곡밥과 함께 먹기도 한다.

두부 먹기

두부를 먹으면 희고 곱게 살이 찐다는 말에서 나온 풍습이다.

개밥 안 주기

'개보름 쇠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토한다는 풍습에서 하루종일 개를 굶긴다. 이것이 연유되어 음식을 거르면 '개보름 쇠듯 한다'라는 속언이 생기기도 했다.

달 맞 이

말그대로 달을 맞는다는 뜻으로 달이 뜰 무렵 동녘에 솟아 오르는 달을 보기위하여 家家戶戶마다 1인씩 대방 지휘하에 달맞이 준비를 하는데 이때 횃을 만들어 사용한다.

횃의 재료는 1년생 싸리나무로 둘레는 약 한자, 길이는 오척정도로 속에서 관솔을 쪼개 집어 넣고 칡으로 8회내지 10회정도 묶는다. 이렇게 만든 횃을 가지고 달맞이 봉으로 올라가 횃불터를 정해놓고 달이 뜰때 대방이 정해준 봉수댁에서 준비한 제물을 차려놓고 횃 불을 지펴 동네치성을 올리며 家內太平과 소원성취를 빈다.

달 점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해의 강우량과 豊凶을 점친다. 즉 달이 '늦게'뜨면 풍년이, 북으로 치우쳐 되게 뜨면 가물고 흉년이 든다고 하였고, 빛깔이 '붉으면' 물이 귀해 흉년이 들며, '밝고 희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다.

횃불싸움

보름날 밤이면 달집에서 타다 남은 횃대(관솔가지등)에 불을 붙이고 東西間의 마을이나 편을 갈라 대치하다가 돌맹이를 던지며 접근하여 서로 횃불을 빼앗는 놀이로 석전(石戰)이라고도 한다.

연날리기

보름날 모든 액운을 멀리해 달라는 기원으로 연을 날렸다. 이러한 우리의 세시풍속은 민족의 脈과 같이 지금까지 답습되어 오면서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지혜와 그 속에 담긴 소박한 뜻을 느낄 수 있는 民族魂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高度의 産業化와 物質文明의 홍수 또 現代文明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이러한 풍습은 점차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가는 듯 하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難觀과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우리 것'을 고수하려는 옛 조상들의 슬기로움과 단합이 그 바탕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네 풍속은 바로 고향과 같은 것이며 한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란 공동체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인 만큼 그 속에 담긴 올바른 의미의 이해와 아울러 계승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지방 歲時 傳承놀이

○ 연날리기

- 기　　원 : 신라 선덕여왕(674)
- 사용재료 : 연(대나무, 창호지등), 실, 얼래
- 놀이계층 : 어른, 어린이
- 놀이시기 : 正月

○ 윷놀이

- 기　　원 : 삼국시대
- 사용재료 : 윷판, 윷(밤, 장작, 콩등)
- 놀이계층 : 일반, 부녀자
- 놀이시기 : 정월 상, 중순

○ 달맞이(迎月) 횃불놀이

- 기　　원 : 신라시대
- 사용재료 : 홰(싸리나무등)
- 놀이계층 : 어른, 어린이
- 놀이시기 : 정월 대보름

吳 貞 振
(인제향토연구소장)

생각하는 民族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뜻을 세워, 이를 이루어 나아 가자.

사람을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강하고, 사람도 동물이지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우리 겨레가 오천년의 역사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上古時代를 빼고는 그 역사의 대부분이 수난과 치욕의 역사인 것은 너무나 현실에 매달려, 발밑만 보고 걸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멀리 바라보고 걸었더라면 이 지경은 안되었을 것이다.

석가는 왕궁(현실)을 뛰쳐 나와 보리수나무 밑에 정좌하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생각에 생각을 파고 파서 人生의 가야할 길을 터득하였고, 청년 예수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사십 주야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지 아니 하였던가?

우리 민족은 생각이 얕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고 현실에만 붙잡혀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고유 종교로 토착화한 무속신앙이 현세의 복을 비는 기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물질이 생각을 좌우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이 물질을 좌우하는 것, 그래서 佛家에서는 "名郎 是色"이라 하지 않던가?

自然을 土台로 그 자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럭저럭 되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主體的 생각에 依해 사는 뜻과 나아갈 方向을 定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自然을 素材로 소위 文化를 創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人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物質은 정신에 종속되게 마련이며, 主體가 정신이요, 自然이 客體 아닌가? 그래야 文化民族이요, 높은 정신문화를 갖는 민족만이 빛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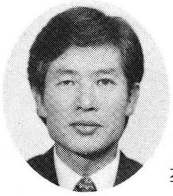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現實에 홀리지 말고 미래를 向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우선 自身의 內面으로 파고 들어 價値觀을 세우자! 뜻을 세우자! 새 생명의 샘을 찾자! 높은 정신문화를 創造하자! 깊은 생각없이 힘만 세었던 징기스칸을 보았는가? 왜놈 무루하치를 보았는가? 겨레여 오늘을 똑바로 보자.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끝나가지 않는가? 먼동이 터 온다.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먼동이 터 온다. 신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리자! 그리고 생각하자.

서양 文化의 껍질인 물질에만 홀려 밖으로, 밖으로만 내 달리지 말고 안으로 파고 들어 참 생명의 샘을 찾자. 높은 정신 문화를 창조하자. 동방의 등불이 되어 天下를 밝히자.



"明朗한 社會로 가꾸어 나가자"

李 升 浩

多事多難 했던 丁卯年을 보내고 大望의 戊辰年을 맞이하는 送舊迎新의 時点에서 많은 想念을 갖게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만 局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백성이 主人되는 政治를 하자는 民主化의 물결속에 集團과 個人의 慾求가 많은 不滿속에서 噴出되었으며 이 가운데 旣存體制의 不正과 不信이 表出되었으며 極限鬪爭 속에서 최루까스와 放火와 파괴등 實로 不安한 가운데 國民 모두가 戰戰兢兢하는 一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 多幸스러운 것은 "六. 二九 民主化宣言"이란 劇的 措置와 함께 國民 多數의 바램이었던 大統領直選制를 骨幹으로 하는 改憲案 國民投票와 이에 依한 大統領選擧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은 매우 鼓舞的인 事件이 아닐 수 없다

또한 政治的 民主化의 물결속에 억눌려온 勞使間의 紛爭은 더욱 우리 國民의 마음을 조이게 했으며 特히 庶民階層의 絶對多數는 社會的 不安과 더불어 物價 폭등에 많은 憂慮를 갖게 되었으며, 참으로 民主問題는 매우 時急히 解決해야 할 問題로 浮上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資本主義 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貧富의 問題는 더욱 深刻해 지고 갖은 者와 못 갖은 者, 있는 者와 없는 者, 잃은 者와 얻은 者 間의 갈등은 實로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特히 象牙塔 속에서 學問探求에 熱中해야할 젊은 學生들이 現實 政治를 批判하고 나라 안의 모든 否定的 要素에 直接 挑戰하여 많은 犧牲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事態는 우리 旣成世代 모두에게 示唆하는바 큰 것임을 自省해야 할것으로 본다.

自意든, 他意든, 權力이나 金力에 迎合하여 社會를 病들게 하고 이웃을 誤導하지 않았는가? 立身出世를 爲하여 曲學阿世하며 썩은 政治를 부추기고 安逸한 思考方式에 依해 公私를 그르치고 甘言利說로 위와 아래를 눈 멀게 하지는 않았는가?

正論과 正義를 멀리하고 이를 論하는 者를 敬遠하여 阿諂과 屈從을 스스로 誘導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病苦를 나의 快樂으로, 남의 失意를 나의 得意를, 남의 淪落을 나의 立身으로, 남의 屈從을 나의 自慢으로 아는 虛實의 權威主義者는 아니었는가?

내가 설 곳이 아닌 곳에 서며, 내가 갈 곳이 아닌 곳에 가며, 내가 빠질 곳에 참여하는 唯我獨尊的 姿勢는 아니었는가? 虛實로 많은 것을 反省케 하는 오늘이다. 그러나 人間은 悔恨에만 잠기는 것은 禁物이라 하든가·····.

이제 우리는 悔恨과 反省과 퇴락에서 進取的인 氣像을 갖고 日就月將 發展하는 來日을 向하여 새로운 設計와 빈틈없는 前進을 期約할 때다. 옛날 學窓時節 그레샴이란 學者는 經濟理論에서 "惡貨는 良貨를 驅逐한다"란 理論을 定立한것을 배운바 있다.

이제 우리 社會에서도 經濟理論과 같이 病든 者가 많으면 健康한 者들은 피하고, 不義에 迎合하는 者가 많으면 正義로운 者가 피하며, 不良한 者가 闊步하는 社會는 善良한 者가 숨어 들고, 僞善者가 판을 치면 賢者가 숨어 드는 眞正한 原理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賢明한 處身이 絶實히 要求되는 時点에 서 있는 오늘을 直視하고, 戊辰 새해부터는 實로 正義로운 社會가 具現되어 惡夢같은 丁卯年의 前轍은 우리 社會에서 終熄을 告하는 밝고 明朗한 社會로 가꾸어 나가자.

特히 갖은 者와, 있는 者와, 얻은 者에게 勸하고자 한다.

文化院의 沿革과 事業

"鄕土文化동산은 愛鄕의 보금자리요,
愛鄕은 愛國으로 직결된다."

— 편집실 제공 —

1. 문화원의 연혁(沿革)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찬란한 역사(歷史)를 가진 고도문화(文化) 민족(民族)이다. 그러나 5천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뜻하지 않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라를 다시 찾았으나, 또다시 민족의 살인마 김일성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남침을 자행하므로서 한민족을 경악시켰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6.25가 끝난 후에도 전쟁의 휴유증으로 물질적 자급자족도가 충분치 못하여 서구의 본의 아니게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받아야 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은 찾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민족혼이 끊겨 질 듯한 압박(壓迫)과 핍박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

이와 같은 세류 속에서도 이 나라를 찾자는 호국지사들의 피맺힌 계도 아래 우리 국민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수호하여 왔다. 특히 일제시대 36년이란 몸서리치는 식민지 생활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가슴 아픈 핍박이었으며 호국지사들의 각고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결국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 함입되어 점차 고유성을 상실한 문화와 사회로 이어 갔다.

그러나 1950년대 각 시, 군 단위 별로 향토적인 성격의 "문화원"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사설 단체이지만 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한 봉사활동과 자조, 자활을 위한 상록수 가꾸기와, 문맹퇴치를 위한 계몽운동 등과 같이 그 시대에 부합되게 성장하여 왔다. 이 시기에 '주한·미공보원'의 지원 협조가 민족 문화 전승에 큰 기여를 했다.

1960년대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창설과 더불어 사설 문화원들이 공익 단체로 되어 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받게 되었으며 1965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으로 사단법인으로 변경, 발전되어 광대한 문화사업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1968년에는 전국 117개 문화원이 개원되었다. 이 시기의 특색은 정부시책 홍보에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재정적 능력이 없이 급조된 신설 문화원으로서 정부 보조만 믿고 사업을 하여 오다, 부실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시켰고, 문화

원은 혼미한 정체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전국의 문화원들은 홍보 계몽에만 치중하였던 사업을 중단시키고, 자력으로 지방 문화 창달 사업의 시대적 사명을 띠고, 활동하여 오던중 74년에 다시 정부에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보조를 지원, 개시하였다.

82년에는 새 문화 정책에 의해 문화원의 활성화가 촉진되었고, 84년 부터는 보조가 크게 증액되었으며 지방비도 함께 보조 받아 문화원이 그 지방 향토문화 창달 본부로서의 위치를 확립, 활성화의 약진기를 맞이하였다. 동시에 모든 문화원이 신 정관을 제정 법인을 보강하고, 경영과 운영을 정상화하게 되었고, 87년 2월말 전국 문화원 수는 152개 법인으로서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의 문화원은 근대화 과정에서 초래된 잘못에 대한 반성과, 문화 선진화의 미래를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한 사회교육을 스스로 찾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날 초기의 사설 문화원들은 처음부터 봉사로서 출발하였고, 그 시기의 이 나라 상록수들의 배후에는 이들 사설 문화원들의 공이 많았으며, 근대화 과정에서의 문화원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데 앞장 섰고, 오늘의 문화원도 향토문화 창달과 새 문화 창조를 위해 요청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가면서 봉사하고 있다.

문화원은 처음이나 이제나 누가 시켜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 준 데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향토 문화를 의지와 신념에 따라 향토인 스스로가 가꾸고, 지키는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곧 향토문화 동산의 동산지기가 스스로 되자는 솔선수범의 이념을 지니는 것이다.

향토 문화 동산은 애향의 보금자리요, 애향은 애국으로 직결된다. 이 점에서 문화원의 동산지기 의식은 민족문화를 꽃피워 애국하는 의지를 함께 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문화원이 하는 일

1. 홍보활동

- 홍보물의 배포, 전시 및 계도활동
- 홍보활동(영화, V.T.R)
- 시국강연, 강좌등 개최
- 순회홍보 및 기타

2. 문예진흥행사

- 향토문화제의 주관
- 문예진흥 일반활동

(문학부문) : 백일장, 강연, 발표회등 개최

(미술부문) : 미술실기대회, 미술강좌, 전시회 등의 개최

(음악부문) : 경창대회, 경연회 등의 개최

(전통예능부문) : 농악, 고전무용 등의 경연회 개최

(각종 문예 써클 지도) : 서예 써클, 음악 써클, 문학 동호회 등

3. 전통 문화 선양 사업

- 향토 전통 문화 자료의 발굴, 정리보존
- 향토 생활 문화 자료의 조사, 보존
- 향토애 및 향토 문예 진흥의 소식지(月, 李, 年刊)발간
- 향토 사지의 편간 또는 편찬대행

4. 도서관 사업

- 자체 도서관 운영
- 공공 도서관의 관리대행

5. 사회 교육 활동

- 노인학교 개설
- 부녀 교실 개설(수공예, 식생활 개선 등)
- 문예 교습소의 개설(서도, 미술, 음악 등의 교습소)
- 청소년 지도 교실, 청소년 문화강좌의 개설
- 애향 문화 창달 교실, 내 고장 문화 논단의 개설

6. 문화 복지 활동

- 시설의 복지 활동(복지, 오락실 등)
- 불우자 보도, 이웃돕기, 계도

7. 국제 문화 교류 활동

- 일본의 사회 교육 기관 '공민관'과의 교류
- 주한 외국 문화 기관과의 교류
- 유네스코와의 제휴 활동
- 기타 교류

8. 최근의 중점 사업

- 청소년 문화 생활 계도
- 경로효친 사상 선양 운동 전개, 글짓기 공모
- 향토사 연구의 설치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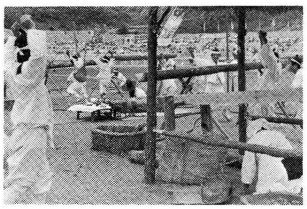
우리고장 文化의 요람

인 제 문 화 원

우리가 이웃인 까닭은
가까이 있음이 아니고
따뜻한 정을 나눔입니다.

두레精神

서로 도와가며 농사일을 한 고비 넘기고 나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게 한판 축제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욕을 쌓고 공동체의식을 다집니다.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어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으로 정착된 두레—
옛부터 우리 이웃들은 두레를 통해
어려움은 서로 돕고 즐거움은 함께 나누며
도타운 정을 쌓아 왔읍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됩니다.
우리가 곱게 가꾸어 온 이웃
사랑의 참뜻은 따뜻한
정을 나눔이 아닐는지요.
文化院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알고 두레정신으로
고장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고장의 文化는

本 第二輯에는 이 고장의 「文壇」에 對하여 수록한다.

詩人 朴寅煥을 배출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의 詩想을 안겨 드린 詩의 고장인 이 고장에는 1977年 4月에 비로소 地方文化가 胎動하기 始作하였다. 그 嚆矢가 詩人 崔燉善(1947 ~), 梁根烈, 崔賢淑, 金成文, 崔秉憲을 中心으로 創立한 〈麟蹄文學同人會〉였으며, 이들은 私財를 털어 麟蹄文學 創刊號를 發刊하였으며 여기에는 '봄강', '百潭寺', '어느날의 이야기', '댕기', '나의 故鄕'등 20篇의 現代詩를 담는 活動을 보였고, 1979년 6월 인제 출신 金龍元(1958 ~)을 中心한 〈달무리同人會〉 會員 10인에 依하여 詩集 「달무리」를 펴내기 始作하여 점차 이 고장에 詩文學의 熱氣를 더하여 갔으나, 그 후 文人들이 組織的인 모임을 갖으며 이 고장 文壇의 中興을 위하여 活發히 活動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崔燉善(1947 ~), 崔洋大(1940 ~), 任敎淳(1938 ~)등이 地方 또는 中央에서 發刊하는 關係紙에 發表하는 것도 이들이 職場等의 사유로 흩어져 실질적 인제 地方의 文壇을 성황하지 못하지 아쉽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나·····.

아울러 中央에서 現在 活動中인 作家들을 소개한다.

· 李外秀(1946 ~) : 麟蹄中 · 高卒, 1975 世代誌에 「勳章」으로 데뷔

· 韓水山(1946 ~) : 麟蹄郡 麒麟面 下南 2 里 胎生, 1972 동아일보 신춘문예「4月의 꿈」當選等

〈편 집 실〉

麟蹄 布敎堂 散調

姜 昔 泉
(白蓮精舍 比丘 太元堂)

앞강 彌勒川에다
조각배를 띄워 볼가,
뒷산 伏龍山에서
종이 鶴을 날려 볼가,
아니야!
푸른 달빛 기우는
새벽에 나와
淸雅한,
九曲에 끓는
長夜速夢을,
깨워 볼가 하노라.

敬老亭에 나가
江 바람을 씌어 볼가,
合口亭에 올라
달 노래를 불러 볼가,
아니야!
보라빛 꽃향기 짙은
老木山 오동나무 그늘에 앉아,
世炎에,
쩔어 젖은 땀을,
등 받이도 벗은 채
合竹扇 들고,
식혀볼가 하노라.

가까운 벗을 불러
菜를 한잔 나누어 볼가,
흰빛 종이 한 장 놓고
시를 한 수 적어 볼가,
아니야!
희밝은 달 넘어가고
별빛이 더욱 빛날때.
窓 열어 놓고
端正히 앉아,
無念 無着
虛空을 구슬꿰는,
坐禪三昧에 들 거나 여.

白蓮精舍　姜 昔 泉
(1928년 1월 14일생)

- 조계종 재정위원장, 인사위원, 중앙총회위원
- 불교미술전람회 심사위원
- 1981년 서울에서 개인전 2 회
- 불교미술전람회 특상, 추천작가상 수상
- 저서 : 불교외의 극락세계
  시집 : 소월이 탄허하고(발간중)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최 돈 선
(강원고교 교사, 향토시인)

아직 문을 열지 마.
봄이 오기엔 너무 이른 때이지.
겨울내내 집안에서 키우던 꽃나무들이 몸살을 하잖아.
문을 닫아.
찬 바람이 문 밖에서 서성이 잖니.
어젯밤 창곁에 놓아 두었던 고무나무가 얼어 버렸어.
물을 너무 주었던 거야.

난초 화분에는 항상 깨끗한 물만 주어야지.
적게 주면 뿌리가 마르고.
너무 많이 먹으면 뿌리가 썩어 버리거든.
뿌리가 튼튼하고 깨끗해야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거야.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 지길 바래선 안돼.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줄은 너도 알고 있잖니.

문 밖은 아직도 겨울 이구나.
애야 초조해 할 건 없어.
저 얼어 붙은 땅 밑에서 부터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그렇지?
윙윙 문을 두드리는 겨울바람 소리라구?
아니야 아니라니깐.
뭔가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야.

참 오래도 참아 왔다 싶게 발바닥을 간지르는,
반달곰의 하품 소리겠지 뭐.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 나라 남쪽 끝에서 이리저리 바람에 실려 온,
이름모를 꽃씨가 눈 틔우는 소리이거나
응 그럴 거야.

그래 그래
한껏 마음 설레여 봐.
유리창에 호오호 호오호 입김을 불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뽀얗게 입김 서린 유리에 가장 깨끗한 너의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송 화 강

오 정 진
(향토문화연구소장)

백두산에 올라
북으로 질펀히 펼쳐진
만주 벌판을 바라보라
송화강 구비구비 흐르는 곳
배달의 자손들아 어서 따라 오라고
손짓하며 흐르는 저 가람을 보아라

누천년 우리의 조상들이
삶을 펼쳐 가꾸어 온 고장
고조선의 땅
고구려 발해의 강토

어느 못난 자손이 있어
조상이 터를 잡아 정들이며 살아온
저 땅을 버리고
이 비좁은 반도로 움추려 드렸는가?

사람은 땅에서 나
땅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땅을 바탕하여 사느니
그 땅을 잃으면
모 — 든것을 잃고 마는것

큰활 힘차게 잡고
드넓은 벌판을 말달리던 자손들아!
좁은 반도에 웅크린 네몸 일으켜
백두산에 올라라
북으로 질펀히 펼쳐진
만주 벌판을 바라보라.

배달의 자손들아
어서 따라 오라고
손짓하며 흐르는
저 가람을 보아라!

— 1986. 12. 10 아침 —

수 탉

김 양 수 (인제국교 교사)

하얀 깃털 속에
도사린 어둠.

조금씩 흔들어 보는
혼자만 아는 무서움.

차라리 감아 버린 눈
별빛으로 떴다가
들켜 버린 비밀.

울어서 토해도
시원찮은 가슴.

새벽녘에
그가 내게 왔다.

전 화

최 양 대 (서화국교 교사)

갈대 숲 헤치며
오지 않고

단풍 물 든
냇물 건너
오지 않고

부리 고운
우유빛 새가 되어

달빛 가득한
하늘로
날아온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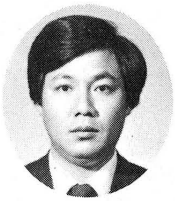
장 날

차 재 연 (원통국교 교사)

군불 땐 사랑 부강지에
새끼 밴 쌀개가 다가앉고
희보얀 새벽이 손을 드민다
칠순의 굴뚝에도
붕실붕실 연기는 피어
달빛 푹 밴 자릿대에
돋는 누런 싹아지
구나무 숲에선 때까치가 난다.
도회의 깃을 반짝이며
자식들이 날았듯이
광에선 고사리 마른것들이

눈을 비비며 꿈에서 깨고
속앓이 돌배나무가 쭈들쭈들한
간 밤을 건낼 때
골 안 물은 그 인정의 골짝을
담차게 흘러 내린다.
나이 찬 오솔길을 걷는 막내 딸
쉰 기침 남편의 언덕배기를 넘어
완행 버스가 달려 가면
묵나물 팔아 살 인심의 해가
닷새 장날인 아침 놀 위로
불끈 솟아 오른다.

무 제



유 연 배
(KBS인제중계소 기자)

자연의 경관만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후덕한 人心이 있는 곳, 만남이 있어 더욱 더 고독을 느끼는 現代人들이 느끼지 못하는 훈훈하고 끈적끈적한 人情이 미로처럼 뒤엉켜 있고 한 줄기 生命水를 마실 수 있는 곳「麟蹄」!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속에 묻혀서 그때의 감정을 증폭 없이는 뒤돌아 보기 어렵지만 매년 이 때만 되면, 아니 오늘따라 그 때의 기억들이 아스라이 떠 올라 빛 바랜 인상들을 주어 모으고 싶어 펜을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학교 생활의 테두리를 떠나 좀더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처음 발령 받은 곳이 지금은 내 작은 삶 속에서는 떼어 버릴 수 없는곳 바로 인제이다.

앞으로 전개될 시련과 또 하나의 조그마한 시작이라는 가슴 벅찬 설레임을 어제하며 짐을 꾸려 친구들의 전송을 받으며 인제행 버스에 몸을 싣고 말로만 듣던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가 뛰어나올것만 같은 시골 구석을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근심 어린 마음에 침묵만을 간직하고 시골 촌 구석…등등. 마치 자신이 대도시의 대명사 인양 실례될 생각들로 눈을 감아 버렸다.

그럴사이 얼마를 달렸을까? 정말 듣던 그대로 보이는 것은 온갖 산… 산들 뿐이었다. 헌데 이상스럽게도 전에 가져 보지 못 했던 아름다운 생각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본래가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간사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을까? 성숙한 여인의 허리처럼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길을 따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버스의 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문자 그대로 신천지같은 인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북한강 상류의 새 파아란 물이 오후의 태양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화려함이며 고개가 아플 정도로 머리를 들지 않아도 바라다 볼 수 있는 주변 경관 그리고 그 사이 사이 양념이라도 되는 양 깍아 세운듯한 괴암 절벽들이 간간이 눈이 시리도록 다가와 취하도록 몽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 물과 산과 거대한 바위로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속의 가상에 그림같이 느껴져 온통 가슴 설레임과 경이감으로 가득차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뇌리가 마비되어 버렸을 때, 얄미운 버스는 시샘이라도 하듯 더욱 더 요란을 떨며 달린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국도변을 따라 조금은 띄엄띄엄 어쩌면 옹기 종기라고 해야 할 손 큰 사람들에게 한줌도.

가슴 넓은 사람에겐 한 눈만 감아도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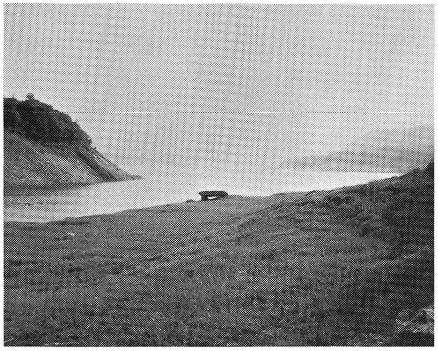
을 조그마한 촌락이 보여 옆 좌석의 중년 아저씨에게 나도 모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하고 말이 나오고 말았으니,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디긴 어디요, 버스 안 이지.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오?"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한방 맞은 기분이었다.

그것도 정통으로 맞은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은 그 사이 자연 경관에 매료되어 그런 감정들일랑 들어 올 구석이 없어서인지 군자다운 나의 성격때문인지 좌우간 기분 상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 군자는 대로행이라던가?' 버스에서 내려 관중(터미날의 승객들)도 의식하지 않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 힘차게 내리쳤다. 하숙집을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정한 곳이 지금의 내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때의 방법이 얼마나 현명한 것이었는가를 시간이 흐르면서 느낄 수 있었으니, 그것은 자연의 경관만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은 후덕한 인심이 있기 때문이다. 만남이 있어 더욱 더 고독을 느끼는 도시의 현대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훈훈하고 끈적끈적한 인정이 흐르고 미로처럼 뒤엉켜 있을 물맥을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 나오는 한 줄기 생명수를 마실 수 있으니 말이다.

모든 이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직장생활, 아니 꾸밈이 없고 소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인제로 오라고·····.

보는 것마다 새롭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찬, 그래서인지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첫 눈에 반해 버린 선남선녀의 설레이는 가슴처럼 그렇게 정이 들어 버린 곳, 아니 이제는 작은 가슴 한 구석에 쌓여 버려 지울 수 없는 지독한 애정마져 느끼게 하는 곳 인제 눈을 감으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희망찬 꿈으로 가득찬 마음 간직하며 조용하나 죽지 않았고, 시끄럽지 않으나 활기에 넘치는 곳 인제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 찾는 이 없는 지석묘 ◇

인제군 남면 남전리 소재 지석묘로 그 곳에 놓여 있는 것만 알뿐 조사도 못하고 더욱이 소양댐 담수시는 물속에 잠겨 버리니 이 묘에 있는 우리 조상의 한은·····?

내일을 기대 해야지

〈편집실〉

第二輯에서는 鷺山 李殷相의 1964年度 雪岳山 行脚中

內雪岳을 素材로 한 노래 31篇中 表紙의 鳳頂庵에서 외 2편을 싣는다.

〈편 집 실〉

▲ 鳳頂庵에서

깊은 밤 이 산골에 들리는 저 물소리
句句節節 奧妙한 眞理로다
인간에 기똥 說法은 모두 헛것이었다.

물소리 마음속을 긴 골 이뤄 흐르나니
밝으신 달이마저 마음위에 버쳤나니
이대로 지녀 돌아가 고이고이 잠들리라.

▲ 麟蹄邑에서

飛鳳山 峨嵋山 이 東西에 마주 솟아
달을 半空에 띄워 주건 말건 놀리 올제
北起龍 南天 八峰이 둘러 구경하는구나.

主人은 돌아 누워 깊은 잠 달다하고
또 손이 혼자 맡아 福을 잠깐 벌렸나니
좋구나 이 신 이 달이 모두 내것이라니.

▲ 寒溪古城에서

이 城은 이를 다 어디로 가 게시고
風雨 千年에 城마저 헐린 터를
無常한 길손이 지나니 눈물 아니 흘오리까.

몇 덩이 남은 돌이 더욱 남을 울림이라
落葉이 불려 날며 쌓여 엎여 가립니다.
傷하여 눈물지는 밤 내를 어이 하오리까.

가을 하늘

이 경 화 (인제중 2년)

하늘밭 이랑마다
목화가 익고
흐르는 냇물따라
구름도 피어난다.

머리위에 앉아
나를 누르던 하늘은
밤엔 별 낮엔 해
그것으로 끝이였는데
이 가을 하늘은
단풍 들고 열매 익는 풍성한
하늘이라

구름은
물에 녹아버릴것 같고
하늘은
햇빛에 익어버릴것 같다.

■'87경로효친사상 선양글짓기 입상작■

금 상 (고 등 부)

'어머니 나의 어머니'

안 금 숙 (인제종합고 3년)

우리 식구는 대가족으로 연로하신 할머님과 부모님과 일곱 남매가 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 덕으로 이 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다. 비록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먼 훗날 넉넉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가족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열심히 살아 왔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시련이 주어진 것이다.

작년 12월 4일 아버지께서 안계신 오후 집안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이다. 형제는 많다고 해도 언니 둘은 결혼을 했고, 오빠는 춘천에서 공부하고, 막내 언니는 서울 직장에, 작은 오빠는 부대 근무, 그러고 보니 집에는 할머니와 국교 6년생인 동생뿐이었다.

갑작스런 일이고 처음 당한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곧 "병원" 생각이 났고, 엄마를 업었다. 동생은 택시를 불렀고, 난 큰 길을 향했다. 인제에 있는 고모댁에 전화를 해서 급히 병원비를 마련해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성의라곤 없이 위급한 상태이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눈 앞이 캄캄했다.

오빠 생각이 나서 춘천 하숙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엄마가 위급해서 인성병원으로 인제에서 7시에 출발한다'는 말만 남겼다. 고모와 함게 엄마를 택시에 태워 춘천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른다.

응급실에 들어 서자 신속한 의사와 간호원들의 행동속에 엄마의 머리는 컴퓨터에 맡겨졌다. 숨막히는 순간 결과는 뇌출혈로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당장 수술계약금 61만원을 준비하라니 오빠는 정신이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할 수 있으니 수술부터 하자고 당부한 뜻은 이루어졌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수술실로 가기 위해 엄마의 까만 머리가 깍여지고 난 울고 말았다. 어려운 수술이니 엄마 모습을 다시 한 번 보라는 오빠의 말에 난 엄마 손을 잡았다. 의식없는 엄마 손을·····.

그 때 시간이 밤 11시 40분, 오빠는 내 손을 잡으며 침착하자고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을 땅만 파며 착하게만 살아 오신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연락할 만한 친척집에는 전화를 하고, 꽉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난 난생 처음 하느님을 찾았다. 새벽 2시 40분, 초록색 까운에 핏자욱이 새겨진, 바로 엄마의 담당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란다.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어 중환자실로 엄마를 뵈러 갔다. 하얀 시트에 흰 붕대로 머리를 싸 매고 입엔 호흡기가 있었다. 무서웠다. 중환자실과 병원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내가 진정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맨발이라는 것과 허기를 심하게 느꼈다. 아침 8시경 부터 친척들이 달려왔다. 1년보다 더 길었던 어젯밤을 난 몇 분만에 모두 이야기 했다. 그제서야 겨우 학교 생각이 났다. 오늘부터 기말고사인데·····.

정오에 엄마 면회를 한 번 더 하고 병원을 떠났다. 집에 오긴 왔지만 마음은 늘 엄마곁에 있었고,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삐그덕" 부엌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집은 나날이 싸늘 해 갔고, 슬픔으로 물들어 갔다. 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며 엄마 노릇을 했다.

엄마는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서 사흘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이 교대로 간호를 했고 엄마는 의식은 찾았지만 뇌 수술 후유증으로 반신 마비에 말씀을 못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 뒤면 완쾌 된다고 했지만 어른들이 말하는 그 "중풍"이라는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 주변에서 한방 치료를 권유했

기 때문에 가족들은 엄마를 퇴원시키기로 했다.

입원 한 달 후 월세방을 얻고 퇴원과 동시에 막내 언니가 직장을 그만 두고 엄마의 간호를 맡았다. 엄마는 언니의 등에 업혀 다니시며 하루에도 몇 수십대의 침과 정성으로 다린 한약 덕택에 보름 후엔 걸을 수 있게 됐다. 학교는 방학중이라 엄마가 좋아하시는 만두와 반찬거리를 준비해 병원이 아닌 월세방으로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를 보는 순간 난 눈물이 왈칵 쏟아 졌다. 너무도 야위셨지만 엄마 혼자 힘으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다시 한 번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젠 가끔씩 엄마를 뵈러 가는 것이 기쁨일 뿐이었다. 병원에서 한 달, 한방 치료 두 달, 아직 완쾌되지 않아 오른 손은 못 쓰시지만 엄마가 집으로 오신것은 하늘과 땅을 모두 내 품에 안은 것 처럼 마냥 기뻤다.

3월 10일 보통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는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서 못난 자식들 잊지 못해 내게로, 가정으로 돌아 온 것이다. 이제 학창 시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텅빈 내 가슴을 메워 오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어머니의 가슴에 내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 갈 것이다.

농촌 생활로는 액수가 많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버지, 끝없이 깊은 사랑만을 주신 어머니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어도 참고 성실하게 살아 갈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며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내 고장 旌閭閣

本 誌에서는 이 고장 烈女中 治病과 關係되는 것 2편을 발취 수록한다.

〈편 집 실〉

▲ 烈女 金海 金氏 旌閭閣(1920年 建立)

· 所在 : 麒麟面 芳東一里 道彩洞

· 業績 : 旌善 金氏 家門에 16세에 출가 온 김씨(1844 ~ 1918)가 21세 때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男便은 不治病에 感染되어 女性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로 斷指注血하는 等 至誠껏 看護하였으나 藥石의 效驗도 없이 世上을 떠났다. 그 후 3년가 侍墓는 물론 온갖 신산고초를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貞節을 지키다가 74歲를 一期로 作故하기 前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旌閭를 命하여 成均館 明倫壯을 받았다. — 金氏는 남편의 忌日마다 지렁이 기름을 모아 불을 켰다 —

▲ 烈女 李弘烈 旌閭閣(1930年 建立)

· 所在 : 瑞和面 瑞和里 堂村

· 業績 : 瑞和로 17歲에 出嫁하여 媤父와 남편이 重病으로 起居를 못하므로 朝夕 大小便을 받아내며 至誠껏 侍湯하였으나 媤父와 男便은 세상을 떠났다. 李樂女는 그후 葬地를 택하기 위하여 험한 十里山路를 단신으로 7일간이나 헤메였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호랑이가 신변을 보호해 주었으며 山主도 이에 감탄하여 장지를 제공하였다. 함께 죽으려 하였으나 자식이 있어 그러하지 못하고 항시 가슴에 비수를 품고 미덕으로 수절하였다. 이에 經學院太學館에서 李烈 表彰 授與와 함께 旌閭를 내렸다.

금 상 (중 등 부)

복주머니에 사랑이

손 동 숙
(서화중 3년)

언제였던가. 제법 쌀쌀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기승을 부리던 어느 가을, 사방에 누렇게 쌓여 있는 낙엽들이 겨울맞을 채비로 바삐 움직이던 때였다.

웬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놓칠세라 품에 꼭 안으시고 우리 집 대문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본 것은 내가 굴뚝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낙엽을 모으고 있을 때 였다.

나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아가야! 여기 ○○네 집이 어딘 줄 아니?" 하고 할머니께서 허리를 나직히 굽히시고는 나에게 물으셨다. 다행이도 그 할머니 내외분이 찾으시는 집은 나하고 소꿉장난 친구 집이었다. 내 딴엔 기쁘게 할머니 내외분을 안내한답시고 뛰어 갔었다.

그런데 그 소꿉장난 친구가 나하고 8촌되는 친척이며, 그 할머니 내외분이 그 친구의 친 조부모님 되시는걸 안 것은 얼마후의 일이었다.

그 후에 나는 친구집에 놀러가 지내면서 어느 정도 그 분들과 친숙한 사이가 됐다. 어찌보면 손자인 나의 친구보다 나를 더 귀여워 해 주신 것 같았다. 그러나 차차 지내면서 나는 그 분들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고부간의 갈등이랄까?

그래서 나와 더불어 외로움을 달래시던 그 분들 ·····.

지금 생각하면 왜 더욱 그 분들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고 안타깝게 후회를 하게 된다.

6학년이 되던 해.

어렸을 때 보다는 아무래도 출입이 뜸해진 친구의 집에 어느 토요일에 할머니 내외분을 뵈려고 달려갔다. 할머니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계셨고, 할아버니께서는 마루에 앉아 계셨다. 나는 대문을 들어서자 직감적으로 그 분들 태도를 보고 심각한 말이 오고 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애써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학교에서 생겼던 재미나는 일을 말씀드리고 웃고 떠들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얼핏 할머니의 글썽이는 눈물을 보았다. 편찮으시냐는 말에 할머니께선 눈물을 훔치시며 아니라고 하셨다. 웬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다음주 일요일.

그 날은 할머니 내외분이 친구 집에서 떠나시는 날이었다. 나는 왜 글 분들이 끝내 떠나셔야 했는지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알것 같다.

그 전날 내가 준비해 둔 작은 선물이 있었다. 할아버지께는 조그만 담배 케이스를, 그리고 할머니께는 평소 아끼던 조그만 복주머니를 드렸다. 내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떠나시는 데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나였던 것 같다.

어머니께선 나보고 별난 애라고 하셨다.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런다고 여기신 모양이었다. 그 분들이 떠나신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어느날 우연히 길을 가르쳐 드린 계기로 많은 정이 들었던 추억. 그 추억을 나에게서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은 약 두달 전 일이다.

그 할머니 내외분이 다니러 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맨 처음 우리 집에 들리셔서 나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주시던 할머니·····. 그 때 난 보았다. 할머니 손에 꼭 쥐어 있던 작은 복주머니를 ·····.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께선 내가 그 분들의 일생에 더 없이 즐거운 낙이었다고 하셨다. 비록 그 분들은 다시 떠나셨지만 나는 내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그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복주머니에 사랑을 담뿍 담아 드리리라. 영원히 식지 않을 따뜻한 사랑을·····.

금 상 (초 등 부)

어머니의 수술

박 현 정
(인제남국교 6)

어느 날 어머니께서

"현정아! 가게 집에 가서 두부 좀 사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신경질을 내며 가게 집에 가서

"아줌마! 두부 한 모 주세요."

하며 억지로 고운 말을 썼다.

두부를 사 가지고 올 때에도 나의 신경질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신경질을 부리며 오다가 두부를 땅에 떨어 뜨려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에게 혼이 날텐데.'

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이윽고 우리 집에 닿았다. 방에 들어가니 엄마께서는

"현정아! 왜 빈손으로 오니? 두부가 없다니?"

엄마께서는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엄마! 제가 짜증을 부리며 오다가 두부를 그만 떨어 뜨렸어요."

엄마께서는 내가 짜증을 부리며 갔다 온 것이 나쁘다고 하시며 털이게로 나를 막 때리셨다.

엄마가 싫었다. 사방팔방이 온통 맞은 자국에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엄마께서 나를 때리실때

'아유, 엄마가 없었으면…….'

하고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엄마, 다시는 짜증 부리지 않을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며 집이 떠나갈듯 울어 댔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다. 그날 밤 아빠가 숙직이셔서 엄마방에서 잤다. 밤에 엄마께서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내셨다. 나는 깜짝 놀라 금방 잠이 깼다. 엄마께서는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현정아 엄마는 죽을라나 보다. 너희들끼리 살 수 있겠니?"

하는 말씀에 나는 낮의 일이 생각났다. 낮에는 엄마가 밉고, 싫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너무도 불쌍하였다. 급히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교육청 숙직실에 전화를 하여 아빠께

"아빠! 엄마가 아주 많이 아퍼, 빨리 집에 와봐!"

하고 말하니 아빠께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달려오셨다. 구급차를 불러 인제종합병원에 가셨지만 거기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여 원주 기독교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하셨다. 엄마가 돌아 가실까봐 두려움이 앞섰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가여운지 엄마의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 주셨다.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당장이라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외삼촌의 차를 타고 원주기독교병원에 갔다. 엄마께서는 아기 보다도 더 걸음을 못 걸으셨다. 아빠께서는

"이제 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부모님들은 이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단다."

하시면 점잖게 타일러 주셨다.

나는 그까짓 두부 때문에 엄마께서 이렇게 콩팥 수술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막상 이렇게 큰 일이 생기니 나도 어쩔줄을 몰랐다. 수술을 한 곳에서 새끼손가락만한 돌멩이가 나왔다. 엄마가 무척 불쌍하였다. 외삼촌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는 사람이 물을 주며 잘 보호해야 살듯이 너희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 살으니 부

모님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인제로 가셨다. 엄마께서는 숨이 막히신지 '헉헉'거리셨다. 나는 급히 의사선생님께 달려갔다. 엄마께서는 입에서 피를 토해 내셨다. 말을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 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완쾌되셔서 집으로 돌아 오셨다. 이제는 아빠의 숙직 날이되면 자꾸 엄마의 일이 다시 생각난다. 엄마께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하시며

"아이고 우리 집 막내 망나니"

하시면서 나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다. 나는 엄마께

"엄마! 이제 부터는 짜증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현정이가 되겠어요."

하고 말하며 엄마의 따스한 품에 안겼다. 엄마의 따스한 품은 아무리 따뜻 한 이불이라도 엄마의 품보다 더 따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적지 순례

이 명 희 (원통고 3)

금방이라도 한 껏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머리 위로한 채 단 한번의 기회인 이 유적 순례에 대한 기대로 온통 부풀어 있었다.

우리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개발이 미진한 우리 지역을 위해 이 지역 사회의 희망인 우리 젊은이들이 국토를 돌아 보고 강원에 대한 긍지와 대한민국 아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신념으로 더욱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체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이 지역의 4개 고등학생들이 모여 구성되어 었다. 우리들은 모두 자기 고장을 위해 견학을 더 열심히 하리란 각오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 일행은 문화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취지와 일정을 들은 후 곧바로 여행길에 올랐다. 어느덧 10시가 가고 있었다.

기린에서 잠시 머물러 우리 일행인 그 곳 학생들을 싣고 다시 속사를 향해 달렸다. 차창 밖에 내다 뵈는 경관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모두 아름답게만 보였다. 도로 옆 뚝 밑으로 흘러가는 깨끗한 물을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그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모두 씻어지는 것 같았다. 이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 물인가!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맘껏 경치에 감탄하고 있을 무렵 운두령 정상에 올랐다. 이 재는 차령 산맥의 줄기이며 평창군에 접해있는 것이다. 또한 1,089m 에 달하는 강원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고개중의 하나라고 한다. 밑을 내려다 보니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안내양 언니의 몇가지의 고개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이 어느덧 재를 넘어 속사에 도착했다.

이승복 어린이 반공기념관을 둘러 보기 위해 우리들은 잠시 차에서 내렸다. 이 기념관은 2년전 대관령 정상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곳 속사로 옮겨 온 것이었다.

속사분교며 생가, 승복 어린이의 당시 모든 것에 대하여 전시된 사진과 물건들을 통하여 보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장공비에 대한 분노가 가슴 가득히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만을 가슴에 새긴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산화에서 점심을 보낸 후 장평을 거쳐 다시 약 15분간을 달려 대화, 다시 평창에 도착했다.

평창!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효석 선생님이 떠 올랐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봉평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곳을 지나는 사이에 마치 그 메밀꽃 향기가 풍겨 오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건설되었다는 영동 고속도로에 접어 들었다. 확 트인 도로에서 시원함을 느꼈다. 원동 고개를 거쳐 소나기재와 횡

성군을 거쳐 영월에 도착했다. 단종대왕릉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 설레임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두근거렸다.

엄홍도의 내력을 시작으로 하여 정자각등 많은 안내판을 보고 건물을 둘러 보았다. 마치 내가 살아 온 집같이 정겹게 느껴졌다. 장릉을 보기 위해 가파른 길을 올랐다. 천마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는 가슴이 메어졌다. 잠시 머리를 숙여 단종의 명복을 빌고 장릉을 한 바퀴 돌았다. 비원(悲願)의 울음소리라도 들리는 듯 싶었다.

우리들은 왔던 길은 되돌아 오대산 국립공원에 들어섰다. 월정사 입구에 빽빽히 둘러 쌓인 아름들이 나무들의 그늘로 인해 상당히 어두웠다. 한번 본 적이 있지만 감회가 새로 왔다. 불상이나 8각 9층석탑 앞에서 왠지 숙연해졌다. 유적에 대한 고귀함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적지 순례단원〉

이튿날, 부슬비를 맞으며 우리들은 오대산을 출발했다. 어느덧, 대관령 싸리재에 진입했다. 오른쪽으로는 스키장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목장이 보였다. 대관령 정상에 올라보니 구름이 많이 끼었다. 구름마저 아름다왔다. '역시 강원의 멋진 광경이구나!' 새삼 느꼈다. 99개의 고갯길을 내려올때 아슬 아슬하기 까지도 했다.

잠시 눈을 감고 잤다. 눈을 떠 보니 어느덧 강릉시였다. 오죽헌을 지나 선교장에 들렀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곳에 있는 선조들의 유품들을 보았다. 우아하고 아름다왔다. 99칸의 방이었다는 집들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규모 면에서나 연못이 특히 그러했다.

다시 올라 동해를 달렸다. 양양의 낙산을 향했다. 당초 예상했던 낙산엔 비가 몹시 내려 들르지 못했다. 다만 멀리 해수관음보살상만을 보았다.

속초에 도착했다. 바다가 훤히 내다 보였다. 모래위를 달리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다음 목적지를 향했다. 잠시 후 관동 8경의 하나인 간성의 청간정을 보며 거진, 대진에 이르렀다.

남한의 마지막 자연 호수 화진호가 보였다. 또한, '김일성 별장'이라 불리는 것도 쓸쓸하게 보였다.

대진항이 앞에 놓였다. 대진항은 남한의 마지막 어업 장소다. 즉, 어로 한계선인 것이다. 이 한계선은 양탑을 마주 하는 선으로 되어 있었다. 안타까움이 절로 들었다. 저 멀리까지 고기를 잡아야 할텐데 하는 마음에 더욱 그러했다.

우리들은 통일전망대 입구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슬라이드를 관람하고, 전망대에 올랐다. 날씨 관계로 비디오를 통해 먼저 관람을 한 후에 북녘 땅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눈 앞에 송도가 보이고 금강산의 마지막 봉인 낙타봉이 안개에 쌓였지만 가깝게 보이는 데 바로 저 곳을 갈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소리라도 질러 목소리만 이라도 저 넘어 가고 싶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국군 아저씨의 호위 속에 그 곳을 내려 왔다. 가슴엔 울분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국토 분단의 비극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 진부령을 넘어 원통,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돌아서 되돌아 와 보니 내 고장 바로 이곳이 새롭게 느껴졌다. 깨끗하고 정화된 우리 고장을 만들어 빛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각오만을 가슴에 새겼다. 공(公)을 위해 일하는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

어느새 집으로 향하는 하늘은 맑게 개이고 있었다.

'87 인제文化院 사업일지

사업일자	사 업 명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2.9 ~ 2.10	청소년 문화생활강좌	인 제 종 고	161명	
3.28	87 제 1 차 이사회의	문 화 원	9명	
6. 4	청소년문화강좌	상 남 중 신남중 · 고	580명	
6. 8	마을 농악기 전수	화 탄 리	60명	
6.18	경노효친 사상선양 글짓기대회	문 화 관	60명	
6. 1 ~ 6.25	인제숯둔골 숯굽기 놀이 연습	화 탄 분 교	66명	
5.27 ~ 6.28	제5회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홍 천 고 교	66명	종합최우수상수상
7.22	예절강좌	인제문화관	120명	
7.22	V.T.R 순회 상영	인제문화관	120명	
7.24	87 제 2 차 이사회의	문 화 원	8명	
7.29 ~ 7.30	문화유적순례	도 내 일 원	50명	
8.28	향토사료수집	관 내 일 원	3명	문화원인제노인회원
9.29	마을농악기 전수	기린면서리	20명	
9.29 ~ 9.30	제28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안 양 시	66명	부문별우수상수상
10.20	마을 농악기 전수	귀 둔 리	20명	
10.23	경노효친수범자 표창	문 화 관	350명	수상자 6명
10.23	향토문화상 시상	〃	350명	수상자 3명
10.23	내고장 문화강조	〃	350명	
11. 7	문화생활 및 시국강연	〃	250명	
11.18	내 고장 문화논단	〃	350명	
11.25	향토사료수집	관 내 일 원	5명	
12. 4	87 제 3 차 이사회의	문 화 원	9명	
12.30	향토문예지 제 2 집 발간		500부	인제문화

인제 문화원 이사 및 사무국 명록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원 장	김 진 용	이 사	한 명 희
부 원 장	정 재 학	〃	전 상 규
이 사	김 관 번	감 사	박 해 순
〃	박 용 구	〃	이 창 락
〃	함 태 봉	사무국장	이 만 철
〃	정 병 석	간 사	김 영 미

문화원 회원 명부

직 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원	김 태 선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461 — 2606
〃	임 복 수	〃 인제읍 상동3리	461 — 2325
〃	박 삼 래	〃 인제읍 상동2리	461 — 5555
〃	이 승 호	〃 인제읍 상동3리	461 — 4566
〃	심 재 필	〃 인제읍 상동4리	461 — 2235
〃	전 상 규	〃 인제읍 상동2리	461 — 2454
〃	방 효 정	〃 인제읍 남북2리	461 — 2555
〃	심 재 복	〃 남 면 신남1리	461 — 6131
〃	이 기 우	〃 남 면 신남1리	461 — 6051
〃	김 진 태	〃 남 면 신남1리	461 — 6439
〃	임 광 준	〃 북 면 원통2리	461 — 3041
〃	차 종 진	〃 북 면 원통2리	461 — 2111
〃	정 인 식	〃 서화면 서 흥 리	461 — 4387
〃	심 병 관	〃 서화면 서화2리	461 — 4310
〃	홍 방 래	〃 서화면 천도1리	461 — 4414
〃	심 상 인	〃 서화면 천도1리	461 — 4019
〃	변 완 기	〃 기린면 현 1 리	461 — 5035
〃	최 복 진	〃 기린면 현 1 리	461 — 5150
〃	박 성 중	〃 기린면 현 1 리	461 — 5505
〃	김 관 번	〃 상남면 상남1리	461 — 6717
〃	김 종 화	〃 상남면 하남1리	461 — 5089
〃	박 용 구	〃 서화면 천 도 리	461 — 2402

88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향토사료 발굴 보존

1. 민속생활 용구 수집
   - 기간 : 88년도 년중 계속 사업
   - 장소 : 관내 일원
   - 대상 : 향토 고유민속 생활 용구
   - 목적 : 전시실 운영과 함께 영구 보존 및 교육자료 함양.

지역사회 교육

1. 청소년 문화 강좌
   - 기간 : 88년 5월중
   - 장소 : 관내 일원
   - 대상 : 청소년 및 학생
   - 강사 : 지역 강사 초청
   - 목적 :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고취 및 의식함양

2. 예절강좌
   - 기간 : 88년 7월중
   - 장소 : 인제문화관
   - 대상 : 부녀회원 및 여고생
   - 목적 : 사회윤리 및 예절 보급 확산
   - 강사 : 관외 학계 인사 초빙

고유 민속예술 발굴

1. 향토 민속예술 발굴
   - 기간 : 88년 6월중
   - 장소 : 관내 일원
   - 대상 : 향토 고유민속 생활 및 놀이
   - 목적 : 사라져 가는 향토 민속 생활 및 놀이 발굴 및 보존

마을 농악기 보급

- 기간 : 88년 6월 ~ 9월
- 장소 : 관내 3개 마을
- 대상 : 관내 3개 마을
- 목적 : 향토 마을 농악 육성 및 보존

88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경노효친 사상 선양

1. 경노효친 사상 선양 강연
   - 기간 : 88년 5월중
   - 장소 : 관내 일원
   - 강사 : 지역 강사 초청
   -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 목적 : 사회 경노사상 의식 고취 및 함양.

2. 경토 효친사상 선양 글짓기 대회
   - 기간 : 88년 6월중
   - 장소 : 인제 관내 일원
   - 대상 : 관내 초, 중, 고 교생
   - 목적 : 경노사상 고취 및 함양

3. 경노효친 수범자 표창
   - 기간 : 88년 10월중
   - 장소 : 인제문화관
   - 대상 : 관내 숨은 효자, 효부 6명
   - 목적 : 경노사상 고취 및 사회 귀감 홍보

애향 운동 전개

1. 향토 문화 유적 순례
   - 기간 : 88년 8월중
   - 장소 : 도내 일부 유적지
   - 대상 : 관내 고등학생 45명
   - 목적 : 고유문화 연구 및 교육함양

2. 향토 문예지 발간

   - 기간 : 88년 12월중
   - 내용 : 향토 문화 소개
   - 발행부수 : 500부
   - 목적 : 향토문화 소개 및 기록 보존

88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지역 문화 개발

1. 내 고장 문화 논단
   - 기간 : 10월중
   - 장소 : 인제 문화관
   - 대상 : 관내 기관단체장 및 일반인, 학생
   - 강사 : 관외 초청 강사 1명, 지역강사 1명
   - 목적 : 지방문화 활성화

2. 내고장 문화 강좌
   - 기간 : 11월중
   - 장소 : 인제문화관
   - 대상 : 기관, 단체장, 학생, 일반주민
   - 강사 : 관외 초청강사 1명, 지역강사 1명
   - 목적 : 향토문화 발전 및 지방강사 1명

3. 향토 문화상 시상
   - 기간 : 10월중
   - 장소 : 인제문화관
   - 대상 : 향토를 아끼고 문화 및 지역 발전에 공이 있는 자 3명
   - 목적 : 주민의식 함양 및 참여 의식 고취

편 집 후 기

◆ 두살박이 「인제문화」 나이보다 숙성하게 만들어, 稀世之才가 없어도 후세들에게 넘겨줄 기록이라는 사명감에서 밤을 잊고, 동공을 굴려도 미덥지 못하니 이 심정 一口難說입니다. (周)

◆ 「인제문화」를 곱디 곱고, 풍만히 알찬, 문화의 꽃을 피우려고 귀한 玉稿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아울러 만족스럽게 못 됨을 사죄 드립니다. (周)

◆ 「인제문화」 第三輯은 더욱 더 배우고 익혀서 명실상부한 인제문화 요람의 대변지가 되고져 당부 드립니다. (周)

-본지의 교정, 편집에 분주한 일손을 더 부려가며 애쓰신 박주화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

편집위원 : 이만철 오정진 유연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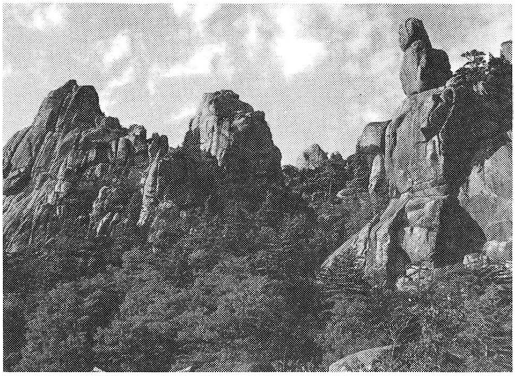
원 고 모 집

인제 문화원에서는 다음 제 3 집 편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1. 기 간 : 88년 년중계속
2. 내 용 : 향토소식, 향토화제(미담, 제언, 시평, 충효등), 인제문예(꽁트, 수필, 시, 만화등)
3. 보내실곳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T. 461-6678

表紙說明



◀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雪岳山에서 가장 오래된 鳳頂庵

北面 龍垈二里에 位置하고 있으며 雪岳山의 大小寺 庵中 제일 먼저 創建한 百潭寺 所屈 庵子로서 新羅 善德女王 12年(643년)에 慈藏律師가 入唐하여 世尊舍利를 얻어 와서 五層塔을 세우고 舍利를 奉安했다 하고 이 암자는 全國 寺刹 및 庵子中 제일 높은 곳(해발 1,244m)에 位置하고 있는 것으로 有名하다.

☞ '麟蹄文化'는 郡內 各 기관, 단체, 학교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麟蹄文化'는 발행 부수가 한정되어 있사와 회관이나 문고, 도서실, 자료실등에 비치해 여러분들이 돌려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麟蹄文化 第二輯

발 행 인 : 金 晋 鎔
편 집 인 : 이 만 철
발 행 처 : 인 제 문 화 원
전 화 : 461 — 6678
인 쇄 처 : 江原日報社 出版局
인 쇄 : 1987. 12. 20
발 행 : 1987. 12. 30

〈비 매 품〉

◉ 本 誌는 한국문화예술 진흥원과 인제군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인제군민 모두 문화기관 誌 입니다.

文化院에 寄附金은 損金算入된다

國稅廳長 有權解釋

〈法人稅法·同施行令에서〉

◎ 指定寄附金은 年間所得金額計算에서 損金算入되고
◎ 文化院의 경우는 指定寄附金이며,
그중에도 非營利公益法人의 惠澤까지 받는다.

【그간의 이해부족】…… 현행 稅法이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탓이기도 하려니와 法人稅法에 근거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문화원에 주는 기부금에는 기부자의 혜택이 전혀 없는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81년도 이전에는 기부자의 年間所得計算에서 損金算入이 되는 경우가 祖稅減免規制法에 名記된 團體에 한하였고, 거기서는 문화원(法人)이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후, 寄附金에 따르는 減免對象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것을 지양하여 法人稅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며동시에 그 폭도 늘리게 되면서 文化院의 경우도 혜택을 받게 된것이다.

法人稅法 및 同施行令의 규정에서는 어느 特定團體를 名記하지 않고 포괄적 對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 보기에는 解釋上의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유권해석】……이 점을 감안하여 韓國文化院聯合會는 새로운 인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有權解釋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회답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었다.

有權解釋의 요청은 이 해 1月 17日 主務部인 文化公報部에 제출하였는데, 文公部는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1월 23일 이를 國稅廳에 이첩하였다. 國稅廳長은 이에 대해 2월 5일「문화원에 주는 기부금의 손금처리」題下의 文文을 통해 有權解釋을 해 온 것이다.

聯合會(會長 姜周鎭)가 有權解釋을 요청한 內容의 골자는 두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文化院에 주는 寄附金이 法人稅法上의 指定寄附金으로 보는 점과 또 하나는 그 경우의 惠澤의 程度가 同法人稅法上의 非營利公益法人이 받는 惠澤과 같은 것(이를테면 100 %의 혜택)으로 보는 점에 대한 公式解釋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國稅廳長의 回信에서는「귀 질의의 경우, 內國法人이 社團法人 韓國文化院聯合會및 전국 文化院에 事業費 또는 活動費로 寄附金을 지출하는 것은 指定寄附金에 該當되어 法人稅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損金算入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설명】……法人稅法 제18조 제1항에서 〈內國法人이 社會福祉·文化·藝術·敎育·宗敎·慈善 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指定寄附金"은 당해 연도의 所得金額에서 損金으로 算入하도록 규정하였고, 同法施行令 제42조 제5호에서 〈政府로부터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文化藝術團體에 事業費 또는 活動費로 지출하는 寄附金을 "指定寄附金"으로 하였다. 文化院의 경우는 이5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文化藝術團體인 것이고 이번의 有權解釋에서도 이점까지 분명히 하였다.

한편 法人稅法 제18조 제1항에서는 指定寄附金의 경우도 그 寄附者의 당해연도 所得金額中의限度規定(동조 동항의 각호)범위내에서만 損金算入을 하는 별도의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으로 우대하였다. 곧 非營利公益法人으로 인정되면 指定寄附金에 따르는 혜택 중에서도 더욱 우대받도록 된 것이다.

法人稅法施行令에서는 제42조의 2에서 非營利公益法人의 範圍를 규정하였는데 그 18개호 중의 제3호에서 〈政府로부터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學術硏究團體·技術振興團體·文化藝術團體와 大韓體育會〉를 들었다. 여기의 文化藝術團體에 文化院이 당연히 자리잡은 것은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

이에 따라 文化院에 주는 寄附金의 경우는 指定寄附金 중에서도 우대되는 非營利公益法人으로서의 혜택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첨언컨대, 결국에 있어 文化院에 직접 寄附하여도 예컨대 文藝振興院이나 大韓體育會 등에 寄附하는 경우와 똑같은 損金處理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 연도 所得金額의 100분의 60 범위내인 경우라면 國家機關에 寄附하는 경우와도 같은 혜택으로 되는 것이다.

〈韓國文化院聯合會〉